연구보고 R653-2 | 2011. 11.

커뮤니터 비즈니스 중장기 육성방안(1/3차연도)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방안과 확대가능성

김 용 렬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용 렬　연구위원　1~5장 집필

머 리 말

이 연구는 지역단계에서 농림어업과 상공업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촌지역경제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공상 연대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공상 연대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농공상 연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농상공 연대'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농산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처 간 협력과 지역의 농공상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 협력이 잘 되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데도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지역과 밀접한 농공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새롭게 형성될 지역의 농공상 연대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

지역단계에서 농림어업과 상공업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촌지역경제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공상 연대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연구주요내용이 소개된다. 둘째, 제2장에서는 농공상 연대의 의미와 개념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들을 국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제4장에서는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 사례들을 소개한다. 먼저 국내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사례로 일본의 농공상 연대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공상 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결과

농공상 연대의 의미

농공상 연대는 컨버전스의 융복합, 네트워크 경제의 협력·상생·상호호혜·신뢰, 광합성 경영의 내치는 문화의 수정을 통한 조직과 지역의 활력, 다양성 포용 경영의 포용과 협력이라는 핵심 의제를 내부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농공상 연대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농공상 연대의 개념을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우리나라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념화 하였다. 즉, 주체(법인체) 간 연대하는 형태로써 '농림어업과 공업, 상업을 직접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또한 각각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

농공상 연대와 관련된 국내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대표적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서로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외에 농공상융합기술개발사업, 농공상융합촉진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농상공 연대 정책의 시사점

첫째, 일본의 농상공 연대는 우선 지역 중심의 발전 모델이다. 둘째, 지역 발전 모델로의 정착 가능성이 크다. 셋째, 농업분야의 창업 및 기업화 확산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농

상공 연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종합세트 형태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

국내사례의 시사점

첫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연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 신뢰감이 높은 중간조직이 있는 경우, 농공상 연대와 협력이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 넷째, 농공상 연대 활동이 지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과 협의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작은 문제(부녀자나 고령자 고용 등)라도 해결할 수 있는 농공상 연대가 주민과 지자체에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일본사례의 시사점

첫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 둘째,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자나 중간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농공상 연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농공상 연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지 문제 해결 참여도**의 경우 결혼이민자 고용 외에 장애인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측면에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작지만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는 판매망 확충과 판로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확보 측면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농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은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순위로 판로부문, 3순위는 기술부문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공상 연대 중간지원조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6%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다섯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고급 인력 및 기술 부족, 계약재배의 미정착(가격 급등락 시 계약 파기), 농공상 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전담 지원할 부서나 인력 부족, 지역주민의 타지역 출신자에 대한 배타성, 자금 조달의 어려움, 판매유통채널 확보의 어려움, 산학협동 연결고리 부재 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체 구성, 판로 지원, 연구개발비와 시설사업비 장기 자금 지원 확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법과 제도 정비, 농공상 융합 지원기업 협의회, 농공상 융합 제품 우선구매, 판로 유통망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농공상 연대 확대 방안

첫째,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 협력 위원회 발족과 인재 양성 필요, 둘째,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 필요, 셋째, 지역성을 살린 농공상 연대 확대 필요, 넷째, 중앙부처간의 정책 협조 극대화, 다섯째, 농공상 연대 참여기업의 농공상 연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목표 공유, 여섯째,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계약거래 정착, 마지막으로, 농공상 연대 촉진을 위한 법제화

ABSTRACT

Integration of Agriculture with Manufacturing and Commerce at Regional Level and Its Growth Pro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cheme of integrating agriculture with manufacturing and commerce in rural areas. The integration of agriculture with manufacturing and commerce refers to agricultural activities that generate high-added values by integrating raw materials (agricultural produce) with technologies (food processing, IT, BT, NT, CT, etc.) through direct collaboration with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The composition of this report is as follows: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Chapter 2 explains the definition and magnitude of the integration. Chapter 3 introduces the related policies of Korea and Japan. Chapter 4 studies cases of agriculture's integration with manufacturing and commerce in Korea and Japan, and Chapter 5 proposes plans for expanding the agriculture's integration with manufacturing and marketing industr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integration, we need consultation and support groups, localized integration, cooper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legal mechanism.

Researchers: Yong-lyoul Kim
Research Period: 2011.1~2011.10
E-mail Address: kimyl@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 3

제2장 농공상 연대의 의미와 개념

1. 농공상 연대의 의미 ····· 5
2. 농공상 연대의 개념 ····· 8

제3장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

1. 국내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 ····· 11
2. 일본의 농상공 연대 ····· 20

제4장 농공상 연대 사례 분석

1. 국내 농공상 연대 사례 ····· 33
2. 일본의 농상공 연대 사례 ····· 47

제5장 농공상 연대 확대 방안

1. 농공상 연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 69
2. 농공상 연대 확대 방안 ····· 73

부록 ····· 77

참고문헌 ····· 91

표 차례

제2장

표 2-1. 농공상 연대의 핵심 의제를 담고 있는 논리들의 특성 ····· 8

제3장

표 3-1. 농림수산식품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 13
표 3-2. 지원대상 융합기업의 농공상 연대 형태 ····· 14
표 3-3. 지원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석 ····· 15
표 3-4. 융합형 중소기업의 법인형태별 분석 ····· 15
표 3-5. 지원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지역별 현황 ····· 16
표 3-6. 중소기업청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개요 ····· 17
표 3-7. 2010년 중소기업청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개요 ···· 18
표 3-8. 2011년 중소기업청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개요 ···· 19
표 3-9.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국산 원재료 이용 ····· 23
표 3-10.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판매와 판로 관련 사업 ····· 24
표 3-11.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연구개발 ····· 26
표 3-12.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인재육성 ····· 27
표 3-13.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 28
표 3-14.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지적재산 활용 ····· 29
표 3-15.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그 외 지원 메뉴 ····· 30

제4장

표 4-1. 양구민들레영농조합과 농공상 연대 ····· 35
표 4-2. 평창군 봉평메밀과 농공상 연대 ····· 37
표 4-3. 고창군 복분자와 농공상 연대 ····· 39
표 4-4. 하동군 녹차와 농공상 연대 ····· 41
표 4-5. 서산시 생강한과산업과 농공상 연대 ····· 42

표 4-6. 상훈영농조합법인과 농공상 연대 ····· 44
표 4-7. 원주 새벽시장과 농공상 연대 ····· 45
표 4-8. ‘산보쿠 생업의 마을 기업조합’의 비즈니스 개요 ····· 49
표 4-9. ‘주식회사 요이키겐’의 비즈니스 개요 ····· 51
표 4-10. ‘주식회사 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의 비즈니스 개요 ····· 54
표 4-11. ‘유한회사 하나토/구로베메밀생산조합’의 비즈니스 개요 ··· 56
표 4-12. ‘주식회사 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의 비즈니스 개요 ··· 59
표 4-13. 돈부리관의 비즈니스 개요 ····· 62
표 4-14. ‘NPO 법인 꿈 미래 구마’의 비즈니스 개요 ····· 65

제5장

표 5-1. 취약계층을 고용한 융합형 중소기업의 비율 ····· 70
표 5-2. 융합형 중소기업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 71
표 5-3. 농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 ···· 71
표 5-4.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72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 4

제2장

그림 2-1. 농·공·상 연대의 활동 영역 ····· 9
그림 2-2. 농·공·상 연대에 따른 활동 ····· 10

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농업부문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다.[1] 이로 인해 농촌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을 기반으로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 농촌주민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은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농촌지역의

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5년에 비해 2.8%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읍면)은 2005년 18.5% 수준이던 것이 18.0%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노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11.3% 수준이나 농촌지역인 읍지역은 13.5%로 고령화사회, 면지역은 27.8%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업부문의 쇠퇴도 지속되고 있다.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수는 2005년에 전체가구 대비 8.0%이던 것이 2010년에는 6.8%로 떨어졌으며, 농가인구는 2005년 8.8%에서 2010년 6.4%로 감소하였으며, 농업경영주 중 60대 이상이 2005년에 58.3%이던 것이 2010년에는 더 늘어나 60.9%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의 경우, 2007년 농어촌 지역의 GRDP가 도시지역의 38.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쇠퇴 속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단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공상 연대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업법인들의 경우, 개업 후 10년을 고비로 영업이익, 매출액, 고정자산이 급속히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김용렬 외, 2011)도 있다. 지역단위에서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공상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 농산물 가공 활성화, 농촌기업의 활성화,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농공상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일반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일본에서는 '농공상연대'라는 사업을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농공상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2010년 7월에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단(단장 : 농식품부·중기청 1급)'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공상 협력에 대한 정부의 첫 정책적 시도이다. 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2011년 6월에 65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을 선정하였고, 중소기업청은 2010년 말부터 농공상융합기술개발사업, 농공상융합촉진센터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공상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의 활성화, 지역의 문제 해결, 경영체 운영 문제 해결,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농공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공상 연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농업은 물론 상공업도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농업과 상공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단계에서 농림어업과 상공업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촌지역경제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공상 연대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2.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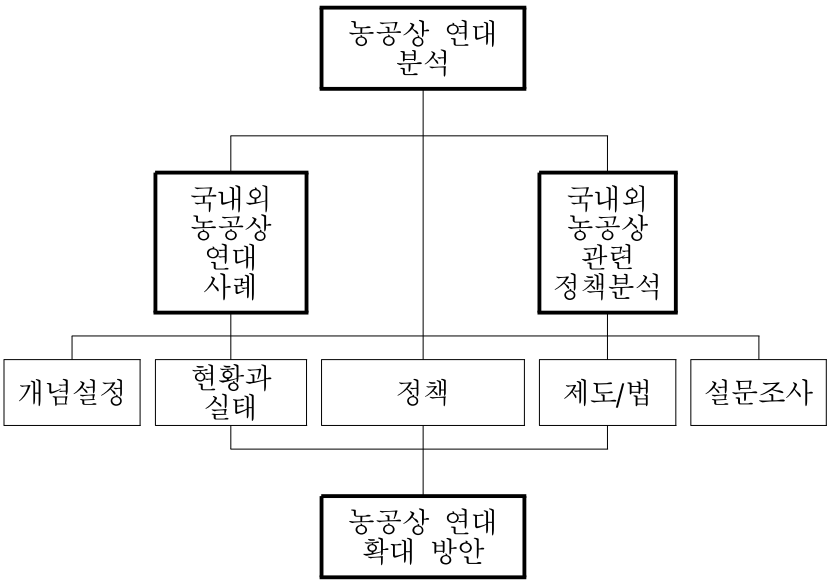
연구수행은 주로 문헌연구와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발굴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에서는 농공상 협력을 위한 개념설정, 이론적 배경, 기존 사례 분석, 국내외 농공상 관련 정책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국외 사례와 정책사례는 일본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농상공연대의 개념, 사례,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현장방문은 새로운 국내외 사례발굴에 활용되었다. 국내 농공상 연대 사례지역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농공상 연대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책들을 살펴보았다. 국외사례는 일본 에이메현을 직접 방문한 결과와 문헌을 통해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2.2. 연구 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연구주요내용이 소개된다. 둘째, 제2장에서는 농공상 연대의 의미와 개념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들을 국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제4장에서는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 사례들을 소개한다. 먼저 국내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사례로 일본의 농공상 연대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공상 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농공상 연대의 의미와 개념

1. 농공상 연대의 의미

'농공상 연대'는 농업, 공업, 상업이 서로 연대하여 협력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 철학이 함께 공유되어야만 한다. '연대'라 함은 '협력+융합+상생+책임+가치공유'라는 명제들을 함께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들을 담고 있는 융합(컨버전스), 네트워크 경제, 광합성 경영, 다양성 포용경영[2]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농공상 연대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첫째, 농공상 연대에 있어 농공상 융합의 개념이 중요하다. 융합(融合, convergence)의 뜻은 '녹아서 하나로 됨'이다. 컨버전스는 한 곳으로 모인다는 수렴의 의미로 주로 수학분야에서 사용하였다. 기술적 의미에서 컨버전스는 1979년 MIT 니그로폰테 교수가 방송, 컴퓨터, 출판 등의 융합을 미디어 컨버전스라고 언급한 이후 보편화되었다(민병석 외, 2005). 또한 무이(Mui) 등은 컨버전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 그리고 비규제화(deregulation)라고 강조하였다.

융합(convergence)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 예술과 과학, 학문과 학제 간 나아가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2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제시한 2020년 경영 흐름을 읽을 10대 핵심 키워드에 '다양성 포용 경영'과 '광합성 경영'이 속해 있다.

반에 걸쳐 하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다.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01년부터 IT, BT, NT, 인지과학 등의 융합과 이들 기술에 인문사회과학까지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삼 외(2007) 연구에 따르면 컨버전스의 종류로써 첫째, 상품(제품, 서비스)이 결합되는 '상품 컨버전스', 둘째, 기술이 결합되는 '기술 컨버전스', 셋째, 시장이 유사해지는 '시장 컨버전스'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상품 컨버전스'는 한 상품의 기능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더해져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고, '기술 컨버전스'는 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사용되어 신기술 및 신상품을 창출하는 것이고, '시장 컨버전스'는 한 시장의 특성이 다른 시장의 특성과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농공상 연대를 위한 융합에서는 분야 간 이루어지고 있는 컨번전스의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여 농공상 모두의 발전적 융합화를 지향하고, 상품 컨버전스와 기술 컨버전스의 방향으로 정책화되어야 한다.

둘째, 농공상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경제(network economics)[3]는 지속가능한 농공상 연대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논거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① 자율적 기업들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기업들은 자원과 리스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 네트워크 경제의 동기부여의 원천은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③ 네트워크 경제의 공급루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조화롭게 조정된다. ④ 네트워크 경제는 상생(윈-윈)을 성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⑤ 마지막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활동하는 특성을 지닌다(제러미 리프킨, 2005). 따라서 농공상 연대를 위한 상생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경제의 공유와 상호이익, 상호 호혜와 신뢰, 지식과 기술의 융합, 상생의 원리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

3 여기서 '네트워크 경제'란 제러미 리프킨의 「유럽피언 드림, 2005」에서 주장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셋째, '광합성(photosynthesis) 경영'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소극적 의미의 친환경 경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광합성처럼 이산화탄소를 사람에게 유익한 산소로 바꾸고 조직 내외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햇빛과 이산화탄소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사람에 대한 광합성 경영과 농업·농촌에 대한 광합성 경영이 필요하다. 조직이나 공동체, 산업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과 산업도 훌륭한 인적, 물적, 산업적 자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람, 산업들을 퇴출하는 것만이 최선으로 여겨왔다. 우리 농업·농촌에는 새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력과 기회가 필요하다. 퇴출이 아닌 교육과 훈련, 다른 분야와의 협력과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인재,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포용(diversity-embracing) 경영'은 '단순히 다양성 시대에 적응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적,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적 성장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라고 한다. 우리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의 핵심인력으로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고, 젊은 새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 다양성을 포용하면 역동성이 살아나고, 창조적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 신뢰, 함께하고픈 마음, 배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포용, 아량, 배려를 통한 농촌내부의 포용, 이것이 농공상 협력(연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덕목이다. 농촌내부는 다양화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역량을 끌어들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양성 포용 경영의 원리를 농공상 연대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종합해 보면, 농공상 연대는 컨버전스의 융복합, 네트워크 경제의 협력·상생·상호 호혜·신뢰, 광합성 경영의 내치는 문화의 수정을 통한 조직과 지역의 활력, 다양성 포용 경영의 포용과 협력이라는 핵심 의제를 내부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표 2-1. 농공상 연대의 핵심 의제를 담고 있는 논리들의 특성

구분	컨버전스	네트워크 경제	광합성 경영	다양성 포용 경영
목적	융합을 통한 혁신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조직의 활력 창출	다양성이 성장엔진
가치	융복합	상생, 협력, 신뢰	분쟁없는 혁신	포용
협력의 장	시장	시장과 사회	조직과 사회	조직과 사회
농공상 연대와의 연계성	융복합	협력, 상생, 신뢰, 상호 호혜	퇴출자원에 대한 재인식	포용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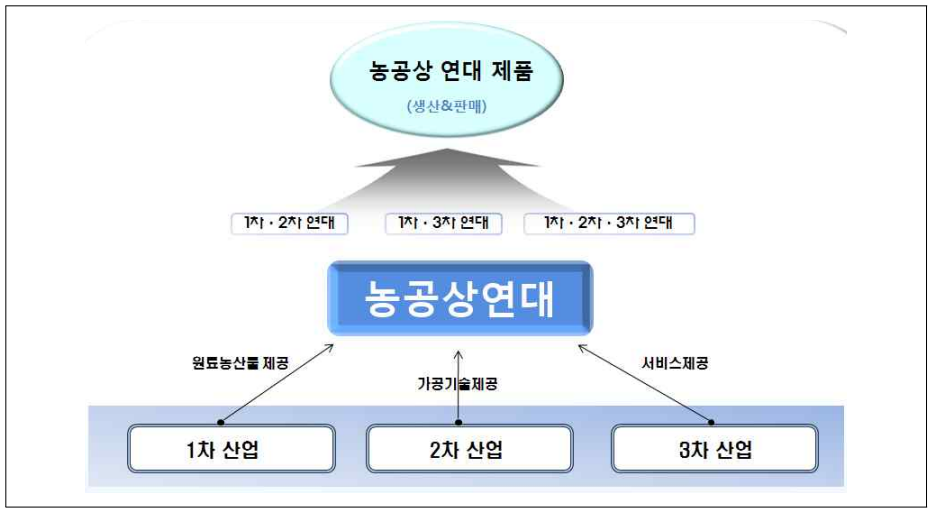
2. 농공상 연대의 개념

농공상 연대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농상공 연대'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농상공 등 제휴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제휴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해당 중소기업자 및 해당 농림어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신상품의 개발, 생산 혹은 수요 개척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제공 혹은 수요의 개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2010년 7월)'에서 밝힌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농공상 연대의 개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는 '농공상융합형

농공상 연대를 통한 경영활동은 농공상 연대형, 농공연대형, 농상연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공상 연대형은 농(1차산업)·공(2차산업)·상(3차산업)이 서로 연대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수산물 원료를 제공하는 농업인과 가공기술을 제공하는 식품기업, 마케팅 기술을 제공하는 유통기업이 서로 연대하여 생산, 가공, 판매라는 순차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둘째, 농공 연대형은 농(1차산업)·공(2차산업)이 연대 협력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가공업체와 연대하는 것이다. 셋째, 농상 연대형은 농(1차산업)·상(3차산업)이 연대하는 형태이다. 생산된 농수산물을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농촌관광, 도농교류, 직거래 등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유통전문업체와 연대하여 체계적인 판매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농·공·상 연대에 따른 활동



디자인: 김용렬·김예슬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

제3장

본 장에서는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을 국내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농공상 연대 관련 정책

농공상 연대와 관련된 국내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대표적이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서로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외에 농공상융합기술개발사업, 농공상융합촉진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1.1. 농림수산식품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책

1.1.1. 개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선정 단계부터 중소기업청과 협력하는 것이다. 융합형 기업을 선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의 정책지원이 서로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R&D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출발해서, 향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대상 선정목표는 2011년에 100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청대상은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써 농어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작성하는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서는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은 R&D와 연계,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BT·N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신제품 또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1차×2차 산업,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영효율화 등 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선정절차는 지자체, 유관기관(농수산물품질관리원, 중소기업지방청) 등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다. 제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우선, R&D 및 식품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에 우대배점을 부여해 식품가공원료 매입, 외식·전처리업체 운영,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신선편이 농산물 시설현대화, 생산자 융복합 식품제조기업 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기반구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지원, 축산물 열처리가공공장 지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지식서비스 지원을 위해 식품컨설팅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다. 기타 우대 지원사업으로는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공상 마케팅 교육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우대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제품 홍보 등 마케팅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즉, 농공상 융합형 EXPO 및 KFE 행사 시 농공상 융합제품 별도 부스 운영, 농협 하나로마트 내 파일럿 숍 설치 등의 마케팅에 대해 지원한다.

표 3-1. 농림수산식품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구 분	'11년 지원가능 사업	'12년 지원가능 사업
원료 구입	◦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농산물 물류 표준화 ◦ 산지유통 활성화 ◦ 농식품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시설·설비 현대화 및 운영자금	◦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 식품기업 인증 컨설팅 ◦ 식품·외식종합자금 ◦ 쌀가공업체 육성지원	◦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 식품기업 인증 컨설팅 ◦ 식품·외식종합자금 ◦ 쌀가공업체 육성지원
판로·수출·마케팅	◦ 농축산물 판매촉진 ◦ 농산물 수출업체 운영 활성화	◦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농축산물 판매촉진 ◦ 농산물 수출업체 운영 활성화
제품개발 및 투자	◦ R&D 지원사업(식품R&D 예산배정 및 가점부여) ◦ 농식품 모태펀드	◦ R&D 지원사업 ◦ 융합형 중소기업 등 특화된 투자조합 결성 검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1

1.1.2. 결과

2011년 6월 30일에 1차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원할 기업을 65개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공개발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졌다.

표 3-2. 지원대상 융합기업의 농공상 연대 형태

농공상 연대 형태	개수	비중
6차	10	15.4%
가공	1	1.5%
가공+생산	29	44.6%
가공+생산+연구	4	6.2%
가공+연구	3	4.6%
가공+연구+유통	1	1.5%
생산+가공	5	7.7%
생산+가공+유통	8	12.3%
생산+유통	2	3.1%
생산+유통+연구	2	3.1%

65개 지원대상 융합기업[4]을 농공상 연대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가공(공)이 주도하여 생산(농)과 연대(가공+생산)하는 경우가 29개로 44.6%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이 주도하여 가공과 연대(생산+가공)하는 경우는 5개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생산 혹은 생산+가공을 연대하는 경우가 34건으로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 경영형, 공동출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65개 기업 중 전략적 제휴형이 가장 많아 52개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평균 업력은 5.8년으로 기업초창기라고 볼 수 있다. 평균자산은 약 185억 원 정도인데 농어업인경영형의 평균자산이 30억 원 수준으로 가장 적고, 전략적 제휴형이 223억 원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상시인력은 17명 정도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공동출자형 1개 기업만 163명으로 중규모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 65개 기업 리스트는 부록 1 참조

표 3-3. 지원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석

유형	개수	평균 업력 (년)	평균자산및 자본금 (백만원)	평균 상시 인력 (명)	평균전년도 매출액 (백만 원)	평균 부채 비율	평균 자기 자본 비율
공동출자형	1	9.0	10,963	163.0	20,022	67.0	33.0
농어업인경영형	12	9.9	3,004	14.3	1,720	165.4	69.2
전략적 제휴형	52	4.8	22,307	14.8	2,734	163.1	45.0
전체	65	5.8	18,569	17.0	2,813	162.1	49.3

개인회사, 영농(어)조합법인, 주식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분류되는 법인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수에서는 주식회사가 41개로 63.1%를 나타내 가장 많이 차지하며, 다음으로 영농·영어조합이 21개로 3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둘의 법인체가 전체에서 95.4%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업력은 영농조합이 7.7년, 주식회사가 5.4년으로 나타났다. 영농조합은 전체 평균업력 5.8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자산의 경우 주식회사는 약 265억 원이고, 영농조합은 약 51억 원인 것으로 분석돼 영농조합과 주식회사 간의 자산 차이는 약 5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균 상시인력에서는 영농조합이 22.4명으로 15.7명인 주식회사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융합형 중소기업의 법인형태별 분석

기업유형	개수	평균 업력 (년)	평균자산및 자본금 (백만 원)	평균 상시 인력(명)	평균 전년도 매출액 (백만 원)	평균 부채비율	평균 자기자본 비율
개인회사	2	0.5	450	4	0	17.5	82.5
영농조합	19	7.7	5,142	22.4	5,295	202.0	47.2
영어조합	2	2.0	424	6.0	1,520	43.0	57.0
조합공동	1	3.0	18,800	15.0	5,472	570.0	14.0
주식회사	41	5.4	26,552	15.7	1,797	146.5	49.1
전체	65	5.8	18,569	17.0	2,813	162.1	49.3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17개로 26.2%를 차지해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1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전남 다음으로 충남 9개(13.8%), 충북과 제주 각각 7개(10.8%)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나주시와 제주시가 각각 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선정 후 중앙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홍보부족이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지원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지역별 현황

광역단체	개수	비중
강원	1	1.5%
경기	5	7.7%
경북	4	6.2%
광주광역시	3	4.6%
대구광역시	1	1.5%
대전광역시	1	1.5%
부산광역시	1	1.5%
서울	1	1.5%
울산광역시	1	1.5%
인천광역시	1	1.5%
전남	17	26.2%
전북	6	9.2%
제주	7	10.8%
충남	9	13.8%
충북	7	10.8%

1.2. 중소기업청 관련 지원 사업

1.2.1.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가. 개요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업무협약(2010. 7. 29)의 일환으로, 2010년 9월 20일에 처음 사업공고를 했고,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기반의 특화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3세대 바이오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의 지원규모는 50억 원 수준이다.

지원내용은 지정공모과제와 기업제안과제로 나뉘어 있다. 지정공모과제는 총 20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해 발굴된 산업바이오 분야 등의 농공상 융합제품 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기업제안과제는 총 30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지역특화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도출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지정공모과제와 기업제안과제가 동일한데, 개발기간이 최대 2년, 연구개발비는 최대 4억 원으로 하고 있다.

표 3-6. 중소기업청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개요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지정공모	최대 2년, 4억 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
기업제안	최대 2년, 4억 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2011

본 사업의 기본 신청자격 조건의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은 제외되며, 농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다.

나. 지원 내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0년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14개 과제[5]를 선정하여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개, 서울 2개, 대전충남 2개, 대구경북 2개, 강원 1개, 충북 1개, 부산울산 2개, 전북 1개, 광주전남 1개로 지역적 편중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과제들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농림수산물은 인삼, 청삼, 참외, 토마토, 쌀, 홍삼, 오미자, 갈조류, 편백, 비타민나무, 삼칠근이다. 이들을 활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상품은 세 분야(기능성 식품, 화장품, 섬유소재)로 압축된다.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과제가 8개,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5개, 섬유 소재를 개발하려는 과제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2010년 중소기업청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개요

구분	내용
지역	경기 2개, 서울 2개, 대전충남 2개, 대구경북 2개, 강원 1개, 충북 1개, 부산울산 2개, 전북 1개, 광주전남 1개
농림수산물	인삼, 청삼, 참외, 토마토, 쌀, 홍삼, 오미자, 갈조류, 편백, 비타민나무, 삼칠근
최종성과물	기능성 식품 8개, 화장품 5개, 섬유 소재 1개

2011년에는 총 34개 과제[6](지정공모 과제 10개, 기업제안 과제 24개)를 선정하였다. 지정공모 10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은 칡, 산채, 오

5 과제 리스트는 부록 2 참조
6 과제 리스트는 부록 3과 부록 4 참조

미자, 자생식물, 해파리, 도라지, 산마, 수산가공부산물, 발아곡물, 호암이었다. 이들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은 기능성 식품 4개, 화장품 4개, 기능성 소재 1개, 사료첨가물 1개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제안해서 선정된 24과제의 경우, 20가지의 농산물을 활용해 4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제품을 보면,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과제가 13개(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6개, 바이오 소재가 4개, 사료첨가제 1개로 나타났다.

표 3-8. 2011년 중소기업청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개요

구 분	내 용	
농림수산물	기업제안 24과제	녹차, 편백, 홍삼, 난대성 작물, 식이섬유, 오미자, 견과류, 봉독, 뽕잎, 마, 현미, 인삼, 어류, 장뇌삼, 버섯, 감귤부산물, 더덕, 죽염, 꾸지뽕, 감껍질
	지정공모 10과제	칡, 산채, 오미자, 자생식물, 해파리, 도라지, 산마, 수산가공부산물, 발아곡물, 호암
최종성과물	기업제안 24과제	기능성 식품 13개, 화장품 6개, 바이오 소재 4개, 사료첨가제 1개
	지정공모 10과제	기능성 식품 4개, 화장품 4개, 기능성 소재 1개, 사료첨가물 1개

1.2.2. 자금지원 및 우대 지원사업

자금지원 부문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중심이다. 본 융자는 신성장기반자금 7,820억 원(융복합사업자금 1,420억 원 포함), 창업기업지원자금 14,000억 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5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성장기반자금 중 융복합사업에서 농공상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문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식서비스 지원에서는 아이디어상업화사업 30억 원으로 농공

상융합 EXPO에서 기술이전 과제 중 15개 이내의 과제를 선정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성장컨설팅 지원 165억 원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있다.

기타 우대 지원사업으로는 농공상 맞춤형 경영교육 지원, 지역단위 농공상 협력체계 구축 운영, 벤처기업대상 선정 시 우대, R&D시험 및 분석 지원, 납품용 등 시험 및 분석 성적서 발급, 성능인증제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개발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등이 있다.

2. 일본의 농상공 연대[7]

2.1. 일본 농상공 등 연대촉진법 제정 배경 및 추진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장기 침체기를 거쳐 경기회복은 되었으나,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대비한 부단한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기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가치로 고용기회의 창출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가 제휴하여 사업활동을 하기에는 양자의 경영자원이 취약함에 따라 양자 간의 사업활동 범위에서 교류의 기회가 적어 농상공 제휴 사업활동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였다.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나 현행 법률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는 신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모태로 '지방재생전략'(지역경제활성화 통합본부 결

7 본 절의 내용 일부는 김용렬·허주넝(2011) 연구 중 일부를 발췌·재정리한 것이다.

정)이 수립되었다. 그 중 농림수산업자와 상공업자와의 연대를 위한 대처로 '농상공 연대' 추진을 통한 지역기반이 되는 농림수산업 등 지역산업의 재생 도모가 중요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지방재생전략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립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상업·공업 등의 산업간 연대('농상공연대' 촉진 등에 의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처에 대하여'를 공표하고, 이것을 근거로 농상공 연대 관련법의 제정 등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하였다.

2.2. 일본정부의 농상공 지원을 위한 시책

농상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지역산품이나 전통공예품을 정리·체계화 하고, 지역전체의 매력을 보급할 수 있는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상점가의 공실을 활용한 농산물 직매소를 설치하고, 상점가 활성 대책 등과도 연대하는데 지원한다. 성공 보수형으로 판매개척을 하는 민간 비즈니스의 인지도 향상 및 신용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역 자원활용 프로그램', '광역종합 관광·고객유치 서비스 지원사업', '신연대 대책지원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둘째, 지역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지원한다. 지역특산물을 생산자가 염가로 직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공 및 전자태그 등을 활용한 생산·유통관리를 지원하고, IT 경영 응원대에 의한 중소기업 농업자의 연수, 성공사례 등을 수집·보급한다. 또한 지역을 유지하는 인재육성 및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을 함께 한다. 지역 산학연연대를 통해 지역 과제해결을 짊어지는 중핵인재의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셋째, 지역의 지적재산 '창조·보호 활용'을 촉진시키는 지원을 한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에 대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행정적으로는 지역 경제산업국과 지역

농업행정국과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미나 등을 실시해 부서간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한다. 농림수산분야 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지적재산 정보제공 기반의 정비에 있어 특허유통 데이터베이스의 유효활용에 협력하고, 지역단체상표제도의 활용을 주지·보급하는데 있어 농림수산성과 연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넷째, 시책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방국 수준에서의 연대를 강화한다. 공동리플렛을 작성한다거나, 상담창구 등에 양성의 시책을 서로 소개하며, 공동블록회의 설치 등 시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방농업행정국과 지방경제산업국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한다.

다섯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 간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로고 등의 선정과 대신(大臣) 등의 간부에 의한 '지역공생 캐러밴(caravan)'을 실시한다. 또한 대신 등의 간부에 의한 매장 판매와 소매관련 업계단체 등과의 간담회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농상공 연대를 위한 PR 등을 한다. 농상공 연대 88선을 만들어서 농업, 상업, 공업을 연대하여 지역활성화 대응에 참고토록 하였다. 해외에서의 탑 세일즈(Top sales)와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및 기업입지촉진법에 관한 PR도 행한다. 지역경제 산업활성화 대회 개최,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에 야성의 간부들이 참가토록 하였다. 기업의 CSR 일환으로 기업이 농촌 등 지역과의 공생을 위해 지역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촉진하고, 그 지방산품의 사용이나 인적교류 등 농산어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2.3. 농상공 연대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일본은 농상공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10개 부문,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10개 부문은 국산 원재료 이용, 직매사업, 상품개발·판로개척, 상점가활성화, 해외수출, 연구개발, 인재육성, 신규입지 및 설비투자, 지적재산 활용,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국산 원재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원재료 서플라이체인 구축사업'과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 원재료 서플라이체인 구축사업은 다양한 니즈에 맞춘 국산 원재료의 안정적인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위해 생산자·중간사업자·식품제조업자 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사업이다.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은 농업협동조합, 농업생산법인, 농업인으로 조직된 단체 등에 지원되는데, 집출하시설과 농축산물 처리 가공시설 등의 공동 이용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9.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국산 원재료 이용

사업명	지원대상
국산원재료 서플라이체인 구축사업	생산자, 중간사업자(유통업자), 식품제조업자 등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농업협동조합, 농업생산법인, 농업자로 조직된 단체 등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중 판매와 판로와 관련된 부문은 직매사업, 상품개발·판로개척, 상점가 활성화, 해외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직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연계 공생·대류 등 대책 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NPO법인, 농사조합법인 등의 민간단체이며, 지원내용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소프트사업과 농림수산물 가공시설 등의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다.

상품개발과 판로개척 부문은 '농상공 연계 지원', '신사업 활동 촉진 지원 사업', '지역산 물품 판매 개척 기회 제공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자 신사업 전국 전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상공 연계 지원 사업'은 교류회의 개최, 연계 사업에 착수할 인재 육성, 신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코디네이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신사업 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시작품개발, 시장조사, 전시회 출전, 전문가에 의한 지도·조언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및 시장화 지원 사업과 연계체계 구축, 시장조사, 전

문가 파견 등을 지원하는 연계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지역산 물품 판매 개척 기회 제공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일정기간에 걸쳐서 상설형식의 판매 스페이스를 설치와 신상품 판로개척 지원과 전시·상담회를 통해 신상품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자 신사업 전국 전개 지원 사업'은 특산품개발, 관광자원개발 및 판로 개척, 신상품개발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상담·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3-10.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판매와 판로 관련 사업

지원부문	사업명	지원대상
직매사업	광역연계 공생·대류 등 대책 교부금	NPO 법인, 농사조합법인 등의 민간단체
상품개발·판로개척	농상공 연계 지원	1) 지역식품산업, 농림수산업, 관련산업, 대학·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계에 의해 설립된 단체, 2) 농림어업자 또는 상공업자 등에 의해 조직된 단체 등, 3)민간사업자 등
	신 사업활동 촉진 지원 사업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NPO 법인 등
	지역산 물품 판매 개척 기회 제공 지원 사업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 신사업 전국 전개 지원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과 관광자원개발 및 그 판로개척 등의 구축사업을 지역소규모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행하는 상공회·상공회의소 등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업 활력 향상 사업	상점가 진흥조합, 상공회의소, 상공회, NPO 법인, 민간 사업자 등
해외수출	수출 촉진 대책	농림어업자단체, 식품가공업자단체 등
	일본무역진흥기구 사업	중소기업자 등

상점가 활성화 부문은 '중소상업 활력 향상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점가 진흥조합, 상공회의소, 상공회, NPO 법인, 민간 사업자 등에 지원하며, 컬러 포장 정비, 성 에너지 형 아케이드 정비, 교양문화시설 정비, 상업인큐베이터 시설 정비, 성 에너지 형 가로등 정비, 터넌트믹스 점포 정비, 퍼사드 정비, 방범카메라 설치, 전자 머니·포인트 카드 도입 등과 같은 하드사업과 빈 점포를 활용한 상점가 등 활성화 사업(지역 농산품 안테나 숍, 자녀양육지원시설, 고령자교류시설, 챌린지 숍 사업 등),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 노화된 아케이드 철거, AED(자동체외식 제세동기), 상점가 전체의 운영관리를 노린 인재육성사업과 같은 소프트 사업을 지원한다.

해외수출 부문은 '수출 촉진 대책'과 '일본무역진흥기구 사업(JETRO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 촉진 대책'은 농림어업자단체, 식품가공업자단체 등에게 외국의 판매 정보 제공, 해외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보조, 상담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일본무역진흥기구 사업'은 지역산품에 관계된 무역상담, 해외에 있는 지역산품 코디네이션 기능, 지역산품 시험수출 등에 의한 주요 수출시장의 과제 추출, 지역산품 수출 실패 사례 등 조사를 지원한다.

농상공 연대를 통한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 부문은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 '신수요 창조 대책', '지역에 의한 산학연계 지원 사업',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 연구개발 사업', '식물이용 고부가가치물질 제조 기반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은 연구영역설정형 연구, 현장실증지원형 연구, 긴급대응형 조사 연구, 기관연계 강화형 연구를 지원한다. 둘째, '신수요 창조 대책'에서는 신수요 창조 프론티어 육성사업, 성분보증·분별관리 시스템 확립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역에 의한 산학연계 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연구과제의 발굴, 공동연구그룹 형성, 공동연구과제로 다른 분야 기관과 기업의 참여 촉진 등의 지원을 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계 형성

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식물이용 고부가가치물질 제조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폐쇄형 식물공장에서 조직변형 식물에 의한 고부가가치 신물질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표 3-11.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연구개발

사업명	지원대상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	2개 이상의 섹터 연구기관 등에서 구성되는 공동연구 그룹(1. 도도부현, 시군면, 공립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2. 대학 및 대학 공동 이용기관, 3.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및 인가 법인, 4. 민간기업, 공익법인, NPO 법인, 협동조합 및 농림어업자)
신수요 창조 대책	민간단체, 신수요 창조 협의회 등
지역에 의한 산학연계 지원 사업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 연구개발 사업	지역산학관(기업, 대학, 공설시험 연구기관 등의 연구단체)
식물이용 고부가가치물질 제조 기반 기술 개발	연구기관 등

인재육성 부문은 산학 인재 육성 파트너십 사업, 중소기업 상품 개발 인재 육성 사업, 지역 신사업 창출 발전 기반 촉진 사업, 지역 기업 입지 촉진 등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산학 인재 육성 파트너십 사업'은 지역산학의 주체인 기업·대학·공익법인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농공상 연대를 위한 실천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 상품 개발 인재 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산업계와 공업계 고등학교 등과 행정 등이 연계하여 학교로 기업기술자를 강사로 파견하거나, 학생과 교원의 현장연수 등을 실시할 경우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 셋째, '지역 신사업 창출 발전 기반 촉진 사업'은 광역적 또는 선진적인 Social Business의 지원에 착수하는 NPO와 주식회사 등에 대해 인건비, 연수 개최비, 전문가 사례금, 여비, 텍스트 작성비 등을 보조해 준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업 입지 촉진 등 보조사업'은 지자체

등과 협동하여 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기업이나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 전문가 배치에 의한 기업유치 활동, 지역기업 등과 협력하여 행하는 인재육성사업에 관련한 경비에 대해 보조해 주고 있다.

표 3-12.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인재육성

사업명	지원대상
산학 인재 육성 파트너십 사업	지역산학(기업·대학·공익법인 등) 컨소시엄
중소기업 상품 개발 인재 육성 사업	도도부현 등 교육위원회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단법인, 상공회의소, NPO 등의 민간사업자
지역 신사업 창출 발전 기반 촉진 사업	Social Business 육성지원을 노린 인재육성과 그 활동 지원을 실행하는 중간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자립한 성공모델을 가진 SB 노하우를 타지역에 전파하는 사업자 조직
지역 기업 입지 촉진 등 보조 사업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지역산업 활성화 협의회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부문은 농상공 연계촉진 시설 정비지원, 농촌 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지역기업 입지 촉진 등 공용시설정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상공 연계촉진 시설 정비지원'은 농림어업자와 식품산업사업자가 안정적 거래관계를 확립하고, 신상품 사업화 등의 착수에 대해 식품의 가공·판매시설과 농림어업용 기계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농촌 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은 농산어촌에서 생산기반과 생산기계 시설, 교류·체험시설 등의 정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 입지 촉진 등 공용시설정비 사업'은 기업입지 원활화에 투자하는 공용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지원해 준다.

표 3-13.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사업명	지원대상
농상공 연계촉진 시설 정비지원	식품산업사업자, 농림어업자 등으로 조직된 단체
농촌 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도도부현, 시군면, 토지개량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삼림조합, NPO 법인, 농림어업자 등으로 조직된 단체 등
지역기업 입지 촉진 등 공용시설정비 사업	민간사업자, 제3섹터 등

지적재산 활용 부문은 식문화 활용·창조 사업,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기초 만들기,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활용강화, 지역단체 상표 제도 활용에 관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식문화 활용·창조 사업'에서는 생산자, 음식업, 관광업 등의 모든 사람들이 연계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을 핵으로 하는 전통요리 PR, 또는 창작요리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둘째,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기초 만들기' 사업은 특허, 상표(지역브랜드) 등에 관한 세미나를 전국에서 개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셋째,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활용강화' 농림수산사업자의 사업전개 중에 생기는 지적재산에 관한 고민과 과제에 대해 개개의 안건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변호사, 각 분야의 어드바이저 등)를 코디네이트하여 파견해 해결책을 조언함으로써 농림수산사업자의 지적재산권 활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체 상표 제도 활용에 관한 연계사업'은 지역단체 상표의 권리 취득과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표 3-14.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지적재산 활용

사업명	지원대상
식문화 활용·창조 사업	생산자, 요리인, 타지방지자체, 상점가, 유통업자, 식기 등의 전통공예품 관계자, 호텔 및 여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기초 만들기	농림수산관계자, 중소기업 등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활용 강화	농림수산관계자, 중소기업 등
지역단체 상표 제도 활용에 관한 연계	지역단체 상표 권리자, 지역단체 상표 출원 검토단체 및 관계기관 등

그 외 지원 메뉴는 비즈니스 연계 지원 사업, 지역 신성장 산업 창출 촉진 사업,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체제 연계 강화 사업이 있다. 첫째, '비즈니스 연계 지원 사업'은 이업종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어업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까지의 분야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신성장 산업 창출 촉진 사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군을 창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체, 지역산업계, 대학 등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에 의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역마다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매칭, 코디네이터의 배치, 시행적 사업 등의 선도적 사업과 전국의 지원기관과 국내외의 연계, 산업지원 인재육성 등과 같은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 지원 사업'은 기업유치 상담회, 산학관 연계 세미나 개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체제 연계 강화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상담처인 기존지원기관, 금융기관, 고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지원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후방에서 서포트한다거나, 자치센터에서도 농상공 연계, 경영혁신, 사업승계 등 고도의 전문적인 경영과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전문가 파견,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경영 상담 창구 설치, 비즈니스 매칭,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해 준다.

표 3-15.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사업: 그 외 지원 메뉴

사업명	지원대상
비즈니스 연계 지원 사업	과거 3년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기업과 창업자 등
지역 신성장 산업 창출 촉진 사업	지방자치체, 지역산업계, 대학 등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 지원 사업	기업유치 상담회 등을 행하는 민간단체
중소기업 지원체제 연계 강화 사업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자 등

2.4. 시사점

일본의 농상공 연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일본의 농상공 연대는 우선 지역 중심의 발전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의 상호 연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地産·地流·地消) 산업구조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지역 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 모델로의 정착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유형화하여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거점화 모델, 신지역 기간산업육성 모델, 관광교류발전 모델, 지역생활과제해결 모델로 유형화하고 있다.

셋째, 농업분야의 창업 및 기업화 확산 가능성이 크다. 농업부문에 대한 민간 R&D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화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 창업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의 기업

화를 촉진하고 소득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 간의 협력 모델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공동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농상공 연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종합세트 형태로 되어 있다. 국산원료조달 지원, 판매와 판로개척 지원, 인력육성 지원, 연구개발 지원, 지적재산권 활동 지원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공상 연대가 지역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다양한 방향에서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으나, 사업실행상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농공상 연대 사례 분석

제4장

1. 국내 농공상 연대 사례

1.1. 1차 산업(농업) 주도형 농공상 연대 협력

1.1.1. 강원도 양구군 민들레 영농조합

양구군 민들레 영농조합은 2004년 4월부터 남면 청리에서 여덟 농가가 스스로 민들레 재배를 시작하여 양구민들레작목반을 결성하였고, 2006년 7월에 민들레녹즙, 진액, 환, 분말, 차, 비누 등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가공 시설은 양구군으로부터 13,000천 원을 지원받아 설립하였다.

양구민들레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3월 5일에 설립되었다. 6.7ha 면적에 민들레를 재배하였다. 재배면적과 참여농가가 점차 늘어나 2010년 현재 총 재배면적은 30ha로 늘었고, 참여농가는 54농가로 증가하였다. 민들레 수매량 및 수매금액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초기 190톤에 560백만 원 정도였으나 420톤에 1,260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kg당 3,000원 정도로 수매하기 때문에 참여농가당 평균소득은 23,770천 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들레는 기후·온도·토양의 영향에 민감하여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지 않는데 양구민들레영농법인은 2기작과 연작이 가능한 자체 재배기술을 확

보하였다. 민들레 즙이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민들레 100% 녹즙, 민들레 70% 녹즙, 민들레진액 등 즙농도를 조절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민들레를 가공해서 판매한 매출액은 2009년에 3,452백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두 배 정도가 되는 7,396백만 원 정도일 것으로 분석된다.

민들레재배농가들이 스스로 330㎡당 100천 원의 자조금을 적립해서 생산→가공→유통(홍보·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자립형 농공상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사)나눔과기쁨과 공급계약을 체결해 월 10,000세트씩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양구민들레영농조합은 자립적 체계뿐만 아니라 외부의 조직과도 연계를 구축하여 민들레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민들레 재배농가와 지자체의 연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민들레가 양구지역에서 향토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민들레 산업육성을 위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중간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출발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단계에 있으며, 추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의 활용 문제와 운영자금의 지원문제 등이 최근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영농조합법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초기의 우수한 제품개발로 시작하였지만, 광고 및 홍보와 추가적인 신제품의 개발 등에 애로사항을 안고 있었다.

표 4-1. 양구민들레영농조합과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민들레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안전·건강 농작물 재배를 원하는 자 농공상 연대 : 영농조합, 가공회사, 중소기업, (사)나눔과기쁨, 지자체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농공상 연대를 통한 상품개발 및 판매 지자체와 협력 자조금 도입
지역활성화 성과	민들레 재배 증가(6.7ha → 30ha) 민들레 재배 농가 증가(8 → 53농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에 따른 가공공장 설립
시사점	민들레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참여농가가 증가하게 되었고, 가공제품 생산시설도 지자체의 도움으로 자체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음. 또한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이 잘 되고 있음.

1.1.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메밀[8]

2000년 평창군의 메밀꽃장려사업, 2004년도의 지역민의 자발적 재배 및 2005년도 농림부 시행 경관직불제로 메밀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였다. 현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3.3m^{2}당 560원하는 경관보존직불제를 실시함으로써 2007년 54ha에서 2009년 80ha(106농가)까지 148%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40톤 규모의 메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어 메밀산업육성은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다.

봉평농협은 메밀농가의 메밀을 수매하여 가공업체에 제공 및 가공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3곳의 법인은 자체 수매 및 농협으로의 공급 등을 통하여 메밀국수 등 다양한 가공제품들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메밀을 수매하는 곳이 농협 이외의 개인 법인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 물량 파악 및 일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02년 효석문화제의 활발한 마케팅으로 인한 성공으로 가공업체 및 식당 등이 증가하였다. 1990년 (주)봉평농원은 봉평메밀특산단지로 지정되어 농림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 메밀국수, 메밀냉면, 메밀차 등의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1995년 이후 롯데, 뉴코아,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및 까르푸, 마크로, 월마트 할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봉평농협은 메밀 농가의 절반 이상의 메밀을 수매하고 있으며 1995년 메밀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가공공장 설립으로 메밀쌀, 메밀가루 등의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해 농협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및 전국 음식점, 마트 200여 곳에 판매해 사업초기 5억 원이던 매출이 2010년 20억 원대로 증가했다.

2009년 37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71억 원인 효석문화제를 통해 메밀이라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과 주변 식당가의 메밀로 특성화한 봉평면만의 특색을 가지게 되었다. 메밀을 널리 알리고 관련 가공사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명실상부한 메밀의 고장으

8 본 내용은 서윤정 외(2010) 자료를 발췌·정리한 내용이다.

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가공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연구를 위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표 4-2. 평창군 봉평메밀과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메밀
대상자· 고객층과 니즈	웰빙 농작물 재배를 원하는 자 농공상 연대: 영농조합, 봉평농협, 중소기업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 서비스·해결방법	농공상 연대를 통한 상품개발 및 판매 수매제도 실행
지역활성화 성과	메밀 재배 면적 증가(80ha)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메밀가공식품 홍보 메밀가공산업 육성
시사점	축제를 통한 관련 상공인 및 주민의식변화로 메밀이라는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1.1.3. 전라북도 고창군 (주)고창명주[9]

고창군은 국내 최대 복분자의 본고장으로 2000년 35ha이던 재배면적이 2010년 1,238ha로 10년 만에 41배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복분자 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4,800농가에서 복분자를 생산하는 고창은 1,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얻고 있으며 최근 웰빙트렌드에 맞춰 복분자 관련 상품의 증가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고창군은 지자체·생산농가·농협·가공업체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농가가 생산하면 농협이 수매해 주류 및 식품가공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생산조직(농업법인) 중심의 규모화된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유통사업단은 생과 수매 및 공급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복분자의 품질별 차등수를 두고 수매 저장기반을 강화하였다. 고창군의 입지여건상 외부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업체 창업을 유일한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2006년 전통주 생산업체인 (주)국순당이 전북 고창 복분자주 생산농가(고창군 심원면 400여 재배농가)와 협약을 맺고 농가는 지분의 72%, (주)국순당은 지분의 28%를 보유하였다. (주)국순당 기술연구소에서 6억 원을 투자하여 명작 복분자를 개발하고, 농가는 원료 생산 및 제품가공의 역할, (주)국순당은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의 역할을 하였다.

2007년 8월 농업회사법인 (주)국순당고창명주에서 '명작복분자'를 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복분자 주와 달리 와인으로의 정체성을 갖으며 100% 고창 복분자를 원료로 한 기능성 전통주로 관심을 받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고창에서 재배되는 쌀과 복분자를 주원료로 빚어낸 프리미엄 복분자 막걸리인 '자연담은'을 출시하였다.

고창군은 복분자관련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의 종료로 군의 지원을 받았던 영세업체의 경우 지원금이 없어지면서 복분자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민주의 경우, 많은 양의

9 본 내용은 서윤정 외(2010) 자료를 발췌·정리한 내용이다.

복분자를 쓰지만, 세법으로 매출의 33%가 세금으로 부가됨에 따라 순이익이 줄어들어 수익구조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복분자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갈등요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분자 나무의 연작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복분자 생산을 통한 소득이 낮아지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를 점점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 복분자 생산기반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따라서 연작피해에 강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병해충과 습해에 강한 새로운 육종 개발이 시급하고, 생산이력제 개선을 포함한 복분자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농공상협력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3. 고창군 복분자와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복분자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지자체, 농민, 농협, 가공회사, 소비자 수매가 상향 조정, 품종개량, 고품질의 저가의 가공용 생과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상품개발, 판매, 유통 협력 (주)국순당, 고창군, 영농조합법인 연대
지역활성화 성과	복분자 재배면적 10배 증가 국순당과 협력으로 인한 기술제공과 판매처 안정화 복분자 지역 거버넌스 구축
시사점	복분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 국순당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과 판로 확보 복분자 생산기반 유지 노력 필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공상 연대
비고	

1.2. 2차 산업(가공) 주도형 농공상 연대 협력

1.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주)동천과 품앗이단

(주)동천은 화개면 일대의 녹차농가와 품앗이단을 구성하고, 녹차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07년 녹차농약파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동천과 녹차생산농가가 2개의 품앗이단을 구성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전성 확보, 안정적인 원료 조달과 녹차수매를 시스템화하였다. 품앗이단은 (주)동천에서 녹차생산농가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녹차농가가 자율적으로 7-8농가 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품앗이단은 (주)동천에게 안전한 녹차를 제공하기 위해 무농약 친환경농법을 실시하여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유기농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농약살포나 비산농약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율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개별농가가 혼자서 녹차농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 등 막대한 생산비용이 들어가지만 품앗이단을 구성함으로써 노동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 품앗이단을 기초로 생산이력제 실시가 용이해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동천은 품앗이단이 생산한 녹차를 전량 수매함으로써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주)동천은 판로 개척을 위해 1차 원료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사례는 생산농가가 안전성을 확보해서 녹차 생산을 책임지고, 유통과 판매는 (주)동천이 책임지는 농공협력의 시스템이다. 중요한 점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농가를 선도했다는 점, 농가는 새로운 시도를 기업과 함께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품질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안정성 검사는 하동군의 하동녹차연구소에서 담당함으로써 민관산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표 4-4. 하동군 녹차와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녹차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자: 안정적인 공급처를 원하는 자 품앗이단, 안전한 원료 공급을 원하는 자 농공상 연대: 녹차재배농가와 녹차가공공장((주) 동천)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농공상 연대를 통한 생산 및 판매 품앗이단 실행 수매제도 실행 생산이력제 실시 하동녹차연구소의 안전성 검증
지역활성화 성과	지역전체를 친환경 농업단지로 변화 품앗이단을 통한 안전한 녹차 생산,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가공공장과 연계한 품질관리 철저(자율감시시스템 구축) (주)동천은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판매처 개척
시사점	농가는 안전성 확보, 기업은 안정적 판로 제공, 농가와 기업 간의 신뢰가 확고한 농공협력

1.2.2. 충청남도 서산시 생강한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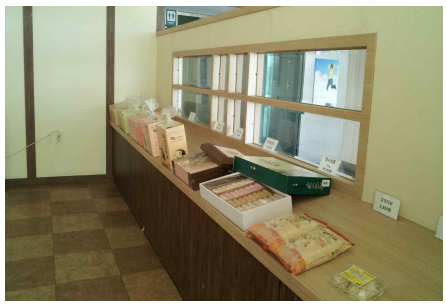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16개 한과업체가 중심이 되는 생강한과협의회를 2005년에 조직하여 생강한과업체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업체는 자체적으로 찹쌀 농사를 지어 이를 한과제조용

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업체의 규모는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에서부터 중규모 사업장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한과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은 연간 12,690명에 이르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약 180톤이고 매출액은 약 28억 원에 이른다. 소규모 업체는 인터넷 판매와 전화판매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중규모의 업체는 인터넷 판매와 대규모 과자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하고 있다.

표 4-5. 서산시 생강한과산업과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한과
대상자· 고객층과 니즈	웰빙 한과 고객 농공상 연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생산농가, 한과업체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 서비스·해결방법	생강한과협의회를 통한 협력 농업기술센터의 중간조직의 역할 충실 자체 생산한 찹쌀 원료 활용
지역활성화 성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 창출 생강한과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정보 교환(업체 간 소통) 자연발생적 한과단지 형성
시사점	공공조직의 신뢰감 있는 중간조직 역할을 통한 농공상 연대 협력 활성화



본 사례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업체간 경쟁의식과 지나친 자긍심으로 인한 불편함을 농업기술센터가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교류와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생강한과 명품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공공조직도 신뢰성 있는 농공상 연대의 훌륭한 중간조직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 3차 산업(서비스업) 주도형 농공상 연대 협력

1.3.1. 충청남도 연기군 상훈영농조합 농산물유통사업

상훈영농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훈유통이라는 유통회사와 연계해 보훈관련 기관(보훈병원, 독거농인 복지재단 등)과 직거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상훈영농조합은 상훈유통 이현옥 대표가 2004년 설립해 박현옥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지역사랑을 바탕으로 한 유통철학과 박 조합장의 신뢰성 있는 농산물 수급의 만남의 조화가 극대화된 사례이다. 본 조합이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을 상훈유통이 보훈 관련 단체에 유통시키는 형태이다.

본 사례는 상훈영농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훈유통과의 신뢰감 있는 관계를 통해 유통한다는 점과 상훈유통의 거래처 발굴과 같은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중간자, 매개자)이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농상연대 협력사례인데, 헌신적이고 신뢰성 있는 생산자와 중간자 활동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자들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신뢰성 있는 중간자와 중간조직의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6. 상훈영농조합법인과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농산물(과일, 채소, 토마토, 오이 등)
대상자· 고객층과 니즈	마을 농가 보훈관련 기관 농공상 연대: 영농조합, 상훈유통회사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 서비스·해결방법	농공상 연대를 통한 농산물 판매 상훈유통회사의 중간조직 역할
지역활성화 성과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시사점	중간조직(중간고리)의 중요성 부각

1.3.2. 강원도 원주시 농산물 새벽시장

농산물 새벽시장은 1994년 개장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10년에는 하루 평균 600여 명씩 24만여 명이 이용해 약 80억 원의 판매실적(2007년 51억 원, 2008년 61억 원, 2009년 70억 원)을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 코너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모범적인 새벽시장 인증으로 지원받은 인센티브로 고객 편의를 위한 카트 100대를 운용하여 차량의 시장 진입을 억제시켜 그동안 차량으로 인한 혼잡스러움을 크게 해소하

고 있다.

2009년에 500여 명으로 구성된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시장은 4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운영되는데, 원주지역 회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일 새벽 4시~오전 9시까지 소비자들에게 싼값으로 판매하고 있다. 새벽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회비를 내야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1년 회비는 6만 원이며 시에서 4천 6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위치는 원주교~봉평교 사이 원주천 둔치에 조성되어 있다. 원주시는 장기적으로 원주로컬푸드 인증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표 4-7. 원주 새벽시장과 농공상 연대

부문	주요내용
지역자원	농산물(채소, 곡물 등)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안전한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지역 소비자 안정적인 판로를 원하는 생산자 농공상 연대: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 농민, 지자체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새벽시장을 활용한 판매공간 활용 농산물 판매 실명제를 통한 신뢰성 확보
지역활성화 성과	생산자, 소비자 간 신뢰성 있는 직거래 지역자원순환형 지자체와 농업인협의회 매개체 역할
시사점	신뢰성 증대를 통한 농산물 판매 증가 지자체와 농업인협의체의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 역할

본 사례는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채소, 곡물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 소비자들에게 시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안정적인 판로를 원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잘 맞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 농민, 지자체가 함께 새벽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업인협의회가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역자원순환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7. 시사점

국내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시사점은 첫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에서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농공상 연대 활동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공공조직으로써 민첩성은 떨어진 면은 있지만 지속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다른 곳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농공상 연대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연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할 경우 지역적으로 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효율적이다. 1차 산물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형성하는데 강점이 있으며, 가공에 대한 지역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농공상 연대 형성의 합의점을 찾는 데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첫 번째 시사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있는 경우, 농공상 연대와 협력이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농공상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농공상 연대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뢰할 만한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공상 연대를 형성한 이후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중간조직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농공상 연대 활동이 지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는 농공상 각각의 주체나 중간조직이 자유롭게 농공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공상 연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의견을 모아갈 수 있고, 학습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과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농공상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형성, 육성,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작은 문제(부녀자나 고령자 고용 등)라도 해결할 수 있는 농공상 연대가 주민과 지자체에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농공상 연대가 경영체의 운영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적 저항에 직면하는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농공상 연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적 농공상 연대가 환영받을 수 있다.

2. 일본의 농상공 연대 사례

본 절에서는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연계되어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1. 지역자원 활용형 농상공 연대 협력

2.1.1. 산보쿠 생업의 마을 기업조합(니가타현, 大瀧富男)[10]

니가타현(新潟縣) 무라카미시(村上市)((구)산보쿠마치(山北町))의 야마쿠

10 출처: 關東経濟産業局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推進チーム「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事例集2008」2009年 3月

마타(山熊田) 촌락은 구시가지 중심지에서 20km 떨어진 산촌으로 토지의 9할이 산림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임업이 성행했으나 최근 임업의 침체로 인하여 임업종사자는 물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산보쿠마치 상공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던 구니이(國井)씨는 "지역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상공업자가 열심히 노력해도 소비자가 활력이 없으면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니이씨는 타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 살리기를 도모하고자 산촌의 '시나후(しな布)'를 시작하였다.

'시나후(しな布)'는 봄에 '시나(しな)' 나무의 껍질을 벗겨 나무의 잿물로 삶아서 부드럽게 한 다음 청류에 표백하여 부서진 것을 뽑아서 실로 만들어 다음 봄에 짜는 것이다. 예전에는 산촌에서 생활하는데 필수품이었으나 시대의 전환으로 소품이나 가방 등 희소가치가 있는 '시나후(しな布)'의 장식품을 소수의 방직공들이 자택에서 겨우 생산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시나후(しな布)'제품의 제조판매, 체험공방의 운영, 각종 투어 실시,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니이씨는 촌락 전체 22호를 대상으로 상담을 거듭하여 '시나후(しな布)'에 의한 지역 만들기 합의를 형성했다. 최종적으로 5호가 100만엔씩 출자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또 상공회에 의뢰한 바,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출자를 해주어 총 1,050만 엔을 모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2000년 10월에 '산보쿠 생업의 마을 기업조합'이 설립되었다. 특색있는 지역자원(食·生業)의 활용, 지역주민·산업단체의 협력관계·일체감, 마을의 경제적·심리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다.

구니이씨는 상공회를 퇴직 후, 동조합에 출자하여 총지배인이 되었으며 경리나 대외적인 교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허물기 직전인 빈 집을 매입하여 2,500만 엔을 들여 개장한 후 그곳에 활동 장소인 체험 공방을 준공하였다. 2001년부터 5인의 농가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시나후(しな布)'의 실 만들기나 베 짜기를 시작했다.

표 4-8. ‘산보쿠 생업의 마을 기업조합’의 비즈니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전	○특색있는 지역자원(食·生業)의 활용 ○지역주민·산업단체·협력의 협력관계·일체감 ○집락이나 마을의 경제적·심리적 파급효과
지역자원	○‘시나후(しな布)’제품의 제조판매 ○체험공방의 운영, 각종 투어 실시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요리의 제공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지역전통문화·생업을 살린 제조체험을 원하는 자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마을 내 빈집을 매입·개장하여 체험공방 준공 ○농가주부들 중심의 ‘시나후(しな布)’의 실 만들기·베 짜기 개시
지역활성화 성과	○체험공방·각지 물산전에서의 ‘시나후(しな布)’제품의 제조판매(매출의 7할 차지) ○향토요리 제공, 체험공방 운영, 각종 투어 실시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
시사점	○지역 상공회와 농가주부들의 주최로 전통문화 발굴 ○특산품 제조·가공·판매를 도모, 집락 사람들이 지역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집락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농업체험 등의 개최로 집락 주민 간의 연결망 구축 ○지역주민 스스로에게 지역에 대한 자신과 자부심을 양성, 지역활성화에 기여

현재 매출의 7할을 차지하는 것은 '시나후(しな布)'제품의 제조 판매로, 체험 공방에서의 판매, 각지의 물산전(物産展)에서의 판매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그 지역에서 채취되는 계절의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요리의 제공, 체험공방의 운영, 각종 투어 실시로 매출액 2억 3,000만 엔(2008년)을 올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산보쿠 생업의 마을 기업조합은 지역의 상공회 사무국장과 농가 주부들이 사라지는 전통문화를 발굴, 특산품의 제조·가공·판매를 통해 마을사람들이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화전 농업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절임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등 마을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농업 체험을 개최, 조직을 통해 마을주민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 스스로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1.2. 주식회사 요이키겐(ヨイキゲン) (오카야마현, 渡辺信行)[11]

'요이키겐'의 와타나베·노부유키(渡邊信行) 사장은 일본 술이나 소주제조 기술을 살려서 무엇인가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 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첫걸음으로 2007년 10월 '배의 리큐어(Liqueur)'를 시판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발신을 위해 오카야마산 백도의 리큐어(Liqueur), 과육이 풍부한 술로 명품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규격외품의 생과일을 사용하고 있다.

오카야마현(岡山縣) 서부의 야카게초(矢掛町) 농림과로부터 '(특산의) 배를 이용한 제품'이 의뢰됨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하여 '배의 리큐어(Liqueur)'의 제품화에 성공했다. 자신을 얻은 와타나베(渡邊) 사장은 상품 아이템으로써도 2종류 이상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오카야마현(岡

11 출처: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地域中小企業應援ファンドスタ-ト·アップ應援型事業化事例集』2011年3月

山縣) 특산으로 전국구의 지명도를 지닌 소자시(總社市)에서도 수확량이 많은 백도를 사용한 신상품에 초점을 맞춰 2009년 8월에 '백도 리큐어(Liqueur)'를 판매하게 된다.

표 4-9. '주식회사 요이키겐'의 비즈니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전	○지역산업자원 활용·지역으로서의 발신사업, 상품화 연구 ○오카야마산 백도의 리큐어(Liqueur). 과육이 풍부한 '술', 전국을 목표로 하는 명품만들기
지역자원	○트레할로스를 사용한 출하 규격외품의 지역 생과일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젊은 층 중심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중소기구 자금 거출 조성 펀드 사업 응모·채택 ○조성금을 사용하여 개발 본격화
지역활성화 성과	○규격외품 생과일 매입 ○펀드에 채택돼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인지도 향상으로 판로개척 용이
시사점	○청주의 소비확대를 향한 기폭제로써 큰 기대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는 어드바이스 습득·활용

「백도 리큐어(Liqueur)」

펀드명
키라메키 오카야마 창조펀드
펀드운영 관리법인
재단법인 오카야마현 산업진흥재단
사업메뉴
지역산업자원활용·지역으로의 발신사업, 상품화 연구
신청테마
트레할로스를 사용한 출하규격외품의 지역 생과일을 이용한 리큐어(Liqueur) 만들기

개발하면서 큰 도움이 된 것은 오카야마현(岡山縣)과 중소기구가 자금을 거출하여 조성한 '키라메키 오카야마 창성(創成) 펀드'였다. 2008년도 동펀드의 조성 사업에 채택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조성금은 기기 도입이나 시험 작업, 이벤트 등에서의 시음(모니터링), 광고 선전, 라벨 작성 등에 사용되었다.

원료인 백도는 형상·중량 등이 출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외품의 소자시(總社市) 생산 '하쿠호우(白鳳)', '시미즈백도(淸水白桃)'를 JA 오카야마 니시(岡山西)(소자시(總社市))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껍질을 벗겨 4분의 1의 크기로 자른 백도를 가는 체로 걸러서 과육과 과즙으로 분리시켜, 여기에 자사제(自社製) 쌀소주(米燒酎)를 잘 배합하였다. 완성된 리큐어(Liqueur)는 알코올 도수 약 7.5도, 완숙 백도 그대로의 맛이다. 백도 리큐어(Liqueur) 제품출하량은 2010년 약 8,000개로, 매출액은 약 8,000만 엔 정도이다.

와타나베 사장은 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또 펀드에 채택돼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시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처도 생겨나고 있다.

2.1.3. (주)아구리하우스 어머니 (군마현)[12]

군마현(群馬縣)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배꼽의 거리(へその街)'이다. 그것을 기념하여 1984년부터 매년 7월 4번째 금·토요일에 '일본의 중심 시부카와 배꼽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은 시부카와시 아카기초(赤城町)에 소재하고 있다. 아카기초(赤城町)는 인구 12,277명으로 아카기산(赤城山) 서부에 위치하며, 낮은 곳은 약 200m, 높은 곳은 1,500m를 초과하는 험난한 마을이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를 살려 고랭지 채소와 양돈이 활발하다.

---

12 출처: 關滿博·松永桂子 2009『農商工連携の地域ブランド戰略 [單行本]』新評論

지역 여성 11명만으로 경영되는 농촌 레스토랑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조리·가공하여 식사로 제공하는 '(주)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은 농상이 결합된 형태이다. 지역 여성들이 직접 만든 수타 메밀국수와 아카기 돼지고기를 이용한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2005년 현(縣)의 '전원(電源) 지역 진흥 지도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되면서 11명의 농촌여성이 농촌 레스토랑 개설을 목표로 농촌여성가공판매조합을 설립하였다. 2007년 농촌여성가공판매조합은 '(주)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의 새로운 조직형태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가공판매조합은 조성금을 모으기 위한 조직으로써 조성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주)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금한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인기 메뉴는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이다. 아카기(赤城)는 산에 인접하고 있어 아침·저녁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맛있는 메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포장이 가능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는 지역의 브랜드 돼지를 사용한 '카쿠니 만쥬'이다. 엄선된 사료 등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감칠맛이 있는 육질을 가진 '아카기(赤城) 포크'의 오리지널 맛을 살려서 푹 끓인 가는 고기를 지역산 밀로 싼 것이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산물을 갖지 못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주)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메뉴 개발에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

원료의 대부분은 멤버의 가정에서 재배된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철저한 지산지소의 농촌 레스토랑인 동시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출액은 2,100만 엔(2007년)이다.

'어머니 정'은 홈페이지의 개설이나 프로모션의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입지조건과 맛이 좋아 다시 찾는 고객의 비율의 높고, 둘째, 본 레스토랑 개설에 관련되었던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함으로써 오는 유대강화를 통한 입소문 효과를 지

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0. '주식회사 아구리하우스 어머니 정'의 비즈니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전	○「農」과 「商」이 결합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여성들만으로 운영되는 농촌 레스토랑
지역자원	○지역여성의 수타 메밀국수와 아카기(赤城)돼지고기를 이용한 농가 레스토랑 운영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안전하고 맛있는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자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용이함으로 많은 관광객 방문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아카기(赤城)농촌여성가공판매조합에 의해 운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조리·가공하여 제공 ○지역산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 노력
지역활성화 성과	○대부분의 원료는 멤버의 가정에서 재배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 가능 ○철저한 지산지소의 농촌 레스토랑 ○안전한 먹거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
시사점	○프로모션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많은 고객 보유 ○입지조건과 맛으로 재방문 고객이 높은 비율 차지 ○지속적인 퍼블리시티(publicity) 효과 창출 ○농촌사회의 관습을 개혁한 여성 기업가 조직 ○남녀공동참여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사회 진출 수단

「赤城농산물직매소」 「아구리하우스 오후쿠로정」

2.1.4. 유한회사 하나토(はなと)/구로베(黑部)메밀생산조합 (도야마현, 貴戶武司)[13]

구로베시(黑部市)는 북 알프스에서 도야마(富山)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구로베천(黑部川)의 선상지에 위치한다.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하면 메밀 생산의 적지이지만 옛날부터 현지 농가가 자가소비분 정도밖에는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로베(黑部)에서 메밀이 생산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은 편이다.

구로베시 관공서의 담당자가 하나토에게 "구로베의 깨끗한 물에서 생산된 메밀은 풍미가 있어서 맛있다. 이것을 구로베의 명산(名産)으로 사업화할 수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건넨 것은 5년 전이었다. 동회사는 구로베시의 우동·메밀국수점 '하나토 본점'을 축으로 구로베시, 도야마시(富山市)에 음식점 9점을 출점하고 있다.

구로베시 담당자의 열의에 얽매여 하나토는 지역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본점에 구로베(黑部) 메밀국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로베시가 하나토와 메밀생산 농가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여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하나토에서의 취급이 결정되면서 생산농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7년 10월에는 농가 8호로 '구로베(黑部)메밀 생산조합'이 설립되었다(현재는 11호). 조합설립 시의 수확량은 1톤이었으나 2009년에는 3.6톤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야마 신사업 창조기금 농상공연계 펀드사업으로, 구로베산 메밀을 사용한 영양가 높은 '메밀열매 만두'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고기 대신 메밀의 열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기만두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맛을 실현함으로써 건강식을 지향하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디어 단계 시, 농업컨설턴트로부터 도야마현(富山縣)과 중소기구가

13 출처: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地域中小企業應援ファンドスタ-ト·アップ應援型事業化事例集』2011年3月

자금을 거출하여 조성한 '도야마 신사업 창조 기금 농상공연계 펀드'를 소개 받은 후 구로베메밀생산조합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응모하여 2009년도 조성사업에 채택되었다. 이것이 '메밀 열매 만두' 탄생의 추진력이 되었다.

표 4-11. '유한회사 하나토/구로베메밀생산조합'의 비즈니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전	○도야마 신사업 창조기금 농상공연계 펀드사업 ○구로베산 메밀을 사용한 영양가 높은 '메밀열매만두'의 개발·판매
지역자원	○구로베산 메밀을 사용
대상자· 고객층과 니즈	○건강식을 추구하는 자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 서비스·해결방법	○중소기구 자금 거출 조성 펀드 사업 응모・채택 ○조성금을 사용한 시장상품 개발 ○메밀 생산 증가를 예상한 상품 다양화 착수
지역활성화 성과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인기 만두 개발 ○전시회,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한 인지도 향상에 주력
시사점	○전국구의 명산품에 '메밀 열매 만두'를 '구로베 메밀'과 일체시켜 지역의 명산으로 육성 ○메밀의 수확량 증가, 지역전체의 노력 불가결

메밀열매(생산지 黒部市)

「메밀 열매 만두」

펀드명
도야마신사업창조기금 농상공연계펀드
펀드 관리법인
재단법인 도야마현 신세기 산업 기구
사업메뉴
도야마 신사업 창조 기금 농상공연계 펀드사업
신청테마
구로베산 메밀을 사용한 영양가 높은「메밀 열매 만두」의 개발·판매

제품개발 과정에서 도야마(富山) 단기대학 하라다·스미코(原田澄子)교수(조리학 등)와 협력하여 맛이나 식품 재료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구로베메밀생산조합과도 연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메밀 열매 만두'는 현재 하나토 본점에서 튀김만두로 제공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냉동만두로 인터넷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하나토는 메밀의 생산 증가를 예상하여 상품의 다양화에 착수하여 3년 전에 건면(乾麵)을 상품화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만두에 착안하여 개발한 '메밀 열매 만두'에 주력하고 있다.

판매를 위해서 전시회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매장이나 인터넷에서의 판매를 위한 포스터나 패키지 디자인에도 조성금을 활용했다. 또한 판로가 확대되면서 비용절감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점에서는 1접시 5개입 320엔(세금 포함)의 가격으로 2009년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매출액 7억 엔(2010년 3월)을 달성했다. 2010년 4월부터 12개 480엔 하는 냉동만두도 인테넷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본 회사는 향후 지명도의 향상과 더불어 대량 생산에 의한 저가격화를 실현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산품(名産品)으로 인정받고 있는 '메밀 열매 만두'를 '구로베메밀'과 일체시켜 지역의 명품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메밀의 생산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2. 3차 서비스 주도형 농상공 연대 협력(지자체와 민간 협력)

2.2.1. 주식회사 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에히메현, 高本厚美)[14]

우치코초(内子町)는 산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약 300㎢, 인구

14 출처: (財)日本地域開發センター參加型まちづくり事例集
http://www.jcadr.or.jp/sankagata_jirei/jireiset/jirei24/jirei24.htm

약21,000명, 총 면적의 7할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는 전형적인 중산간지 농촌이다. 최근에는 대표 작물이었던 잎담배 생산의 정체, 고령화나 인구 과소화에 따라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지역 커뮤니티 유지가 지역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는 우치코초가 주도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농산물 판매를 비롯한 가공품의 제조 판매, 레스토랑 운영이다. 주요 고객층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구입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즐기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이다.

(주)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 설립에는 인구의 과소화와 농업 후계자의 부족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본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1985년 '우치코초 지적 농촌숙(知的農村塾)'을 결성하여 농촌의 고령자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자율 학습을 실시한 것이 제1의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82년경부터 우치코초에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농가의 등장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관광농원을 통한 농업활성화를 목표로 「후루초 파크 구상」이 책정되었다. 당시 우치코초에서는 자치회 조직의 재편과 구시가지의 역사적 거리 보존으로 주민주도형 지역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1994년에는 지적농촌숙 출신의 멤버를 중심으로 '우치노코 시장'이 개설되어 농산물 직매소를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축척하였다. 그 후 1997년 도시·농촌 교류의 장으로써 '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가 개설되었다. 개설 당시 자본금은 7천만 엔으로 그 가운데 2분의 1을 우치코초가 출자하였다. 주주는 677명이었고 총사업비 16억 6천만 엔 가운데 5억 8천만 엔은 국고의 보조를 받았다.

표 4-12. '주식회사 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의 비즈니스 개요

	주요내용
비전	○애그리 비즈니스에 의한 지역활성화와 도시와의 교류
지역자원	○지역산 특산품·농산물 판매, 가공품 제조판매, 레스토랑 운영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구입, 향토음식을 즐기는 사람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농산물 직매소의 실험 시행·노하우 축척 ○도시·농촌의 교류의 장 개설 ○농산물 직판시설, 정보센터, 고도정보화 시스템, 농업체험 시설 운영 ○농산물 가공의 개발·제도, 레스토랑 운영 담당
지역활성화 성과	○연간 이용자의 9할 정도가 지역 외부로부터 방문 ○특산품·농산물판매·가공품 제조판매·레스토랑 등 각 부문에서 매년 증가 ○최근 전업농가나 젊은 출하자 증가 ○단작경영에서 직매소 출하형 소량다품목 유기농업 시도
시사점	○시행착오와 IT의 활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얼굴이 공개되는 농업의 실현 ○직매훈련시설에서의 활동을 통한 참가농가의 주체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합의 형성 도모 ○행정의 지속적 지도·원조 ○농가 출신의 행정직원도 농업활성화 참여 ○우치코초 농업의 발전으로 농가의 인생 변화 ○직매소 운동을 통한 농촌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활동의 실시체제 및 활동방법을 보면 (주)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는 우치코초와 마을 주민에 의한 제3섹터로써 농산물 직판시설, 정보 센터의 운영, 고도정보화 시스템 '카라리 넷(net)'과 농업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3섹터의 직원은 40명 정도이나 직매소 운영 협의회에는 400명 이상의 출하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45%, 여성이 70%를 점하고 있다. 2001년에 43인의 농가여성에 의해 설립된 '우치코 아구리 벤처21'은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고, (주)우치코 프레시 파크 카라리내에 병설된 레스토랑 '아구리정'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활동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간 이용자가 50만 명으로 고객의 9할 정도가 지역 외부로부터 방문하고 있다. 재방문자가 7할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매출액에 있어서는 특산품·농산물 판매·가공품 제조 판매·레스토랑 등 각 부문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2006년 매출액은 약 6억 7,000만 엔이었다. 셋째, 등록 출하자수가 약 800명 정도인데, 주로 소농, 고령농, 취미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하자의 평균 매출은 약 115만엔 정도이며, 1,000만 엔 이상의 농가도 존재한다.

본 사업의 특징은 첫째, '우치노코 시장'에서의 시행착오와 카라리 넷(net) 등 IT의 활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얼굴이 공개되는 농업의 실현이다. 둘째 , 직매 훈련 시설 '우치노코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참가농가가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합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의 지속적인 지도 및 지원이다. 넷째, 행정직원도 농가출신으로 생산자와의 협동으로 농업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치코지역에 파머스마켓이 여러 개 있어서 직판장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영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파머스마켓과의 차별화가 시도되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2.2. 에히메현 돈부리관

돈부리관(どんぶり館)은 지역 내에서 나는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곳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1일 2천 명 정도다.

돈부리관 내 레스토랑에는 매일 신선하게 제공되는 지역산 채소와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며 수제 아이스크림도 인기를 끌고 있다.

돈부리관은 2000년 4월에 개설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엔이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5,000만 엔이다. 출자단체로는 세이오시(西子市)가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5,000만 엔을 출자하였으며, 농협(東宇和農協) 600만 엔, 상공회(西子市商工會) 200만 엔, 산림조합(西子市森林組合) 150만 엔, 어협(明浜漁協) 50만 엔을 각각 출자하였다.

돈부리관은 수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중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농어가 소득 증대에 힘쓰며, 셋째, 농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넷째, 고령자, 취미농, 소농들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돈부리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들의 경우, 농산물 판매에 680여 명, 특산물가공품 판매에 2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 4시에 오픈해서 저녁 6시에 폐장,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하고 있다. 판매 수수료는 농산물 판매 시 10%, 가공품 판매 시 15%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과 약간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한다. 농협은 주로 전업농이면서 중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계통출하하고 있고, 돈부리관과 같은 파머스마켓은 취미농, 고령농, 소농 중심으로 출하하고 있다.

돈부리관은 파머스마켓를 중심으로 특산품판매장, 돈부리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실적을 보면, 2000년에 판매액 396,082천 엔, 방문객 391,962명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에 판매액 586,922천 엔, 방문객 468,626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분포는 세이오시 50%, 인근지역 30%, 고속도로 이용객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농상공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첫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농산판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돈부리관이라는 유통매체를 매개로

질좋은 1차 농산물 판매와 가공품 판매, 레스토랑 운영이 연대되어 있는 농상공 연대이다.

표 4-13. 돈부리관의 비즈니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전	○공익 우선 ○지역 일자리 창출 ○고령자, 소농 판매처 제공
지역자원	○농수산물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안전한 농산물 구입자, 특산품 구입자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처 제공 ○질좋은 농산물과 특산물, 레스토랑을 통해 소비자 유인 ○선착순과 같은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
지역활성화 성과	○고령자에게 삶의 활력 제공 ○지역 방문객 증가 ○지자체의 공익적 역할
시사점	○지자체와 민간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고령자, 소농에 대한 배려 ○자원지역순환형 체계

2.3. 비영리단체 중간조직 주도형 농상공 연대 협력(특정비영리활동(NPO)법인 꿈 미래 구마)[15]

시즈오카현(靜岡縣) 하마마Tm시(浜松市) 덴류구(天龍區)는 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의 약 6할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구마(熊)지구는 해발 220m～최고지 840.6m로, 산림이 지구면적의 87%를 차지, 농용지는 4.7%에 불과하다. 지구 내에는 23개의 집락이 있으며, 인구는 803명, 총세대수는 270호로 인구의 43.5%가 고령자이다.

꿈 미래 구마는 여성들의 비즈니스와 지역복지를 통한 공헌을 주된 과제로 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직매 및 가공판매,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고객층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농산물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환경 및 자원을 이용한 관광 및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1953년에 생활개선운동이 구마 지구에서 시작되었으며, 1981년에 구마 부인회가 지역의 식(食)에 관한 책을 작성하였다.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선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들의 주최로 식(食)에 의한 지역 살리기 아이디어가 탄생하였으며 그 결과, 1983년 조리대 3대와 된장(미소)발효시설을 갖춘 생활개선센터를 보조금으로 건설하고 이 개선센터에서 개선운동그룹의 멤버들이 된장(미소)만들기를 시작했다.

1986년 시(市)로부터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고향활성화 사업'을 제안 받게 되었고, 그해 10월에 '구마 지구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 전 농가가 가입하게 되었다. 1987년 농산물 가공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온 31명의 여성들이 모여 1987년 농산물 가공 시행 그룹 '구마 水車の里 (31명, 그 중 30명이 여성)'를 설치하여 상품개발, 운영자금 조달과 광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8년에 농산물 가공·판매시설인 '마을살리기 쿠마 水車の里'가 완성되었고, 농산물 판매와 메밀을 중심으로 한 식당 '카아상노텡'을 열었다.

---

15 출처: ミッションマネジメント(NPO經營) http://www.kawanisi.jp/npo/06.htm

2000년 구마 지구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마 水車の里, 카아상노텡(かあさんの店) 3개 조직을 통합하여 'NPO 법인 꿈 미래 구마(夢未來くんま)'를 설립하였다. NPO 법인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각 사업이 단순한 경제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해하고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2002년에는 '물산관(物産館))'을 건립하여 고령자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꿈 미래 구마(夢未來くんま)'의 회비회원은 550명으로, 촌락의 290호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입회금은 1호당 1000엔(실질적으로 무료), 연회비는 100엔으로 전체 농가가 가입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였다. 농산물 가공 판매시설인 '구마 水車の里'의 매출액은 연간 7,000만 엔 이상이다.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연간 8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품의 판매에서 얻은 수익은 고령자의 '데이(day)서비스'로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월 1회씩 홈 헬퍼 자격을 소지한 여성이 지역 집합소 8곳(현재 이용자 80여명)에 데이(day)서비스와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회 지역의 큰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도시 아이들이 지역의 고령자들과 어울려 시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당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생활개선그룹 활동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역사회의 위기감과 함께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NPO 법인화가 그 현상이다. 지역 전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소인 '내일의 구마를 이야기하는 모임(明日の熊を語る會)'을 만들고,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역 공유의 자산을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여성들의 주체성만이 아닌 지역의 인지·문제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산촌지역 구마의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속적 활동 공간과 고용창출을 도모하였고, 주민의 자립의식이나 향토애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경영 수지상 흑자경영으로 수익부문의 이익을 고령자 복지 사업 등에 투입하여 지역공헌 사업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영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표 4-14. 'NPO 법인 꿈 미래 구마'의 비즈니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전	○여성의 비즈니스 전개 ○지역복지로의 공헌
지역자원	○지역산 농산물
대상자·고객층과 니즈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농산물의 구입을 원하는 자 ○지역 환경 및 자원을 이용한 관광 및 체험객
과제·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해결방법	○농산물 가공 시행 그룹 설치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농산물 판매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 개점 ○물산관 건설(고령자들의 수공예품 판매)
지역활성화 성과	○농산물 가공·판매시설의 매출액 매년 증대 ○여성들이 만든 향토음식으로 많은 고객 확보 ○농산물 판매에서 얻은 수익은 지역에 환원 ○이벤트를 개최함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시사점	○농산물 가공·판매사업 비즈니스 도입으로 고용 창출 ○주민의 자립의식이나 향토애 고조 ○수익부문의 이익을 고령자복지사업에 투입, 지역공헌사업

「かあさんの店」

「水車」

2.4.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농상공연대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 사업의 내용 및 전략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상공연대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공통된 시사점들이 있었다.

첫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지역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다른 섹터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문제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 서비스를 보완하는 세이프티 넷(safety net) 기능도 담당했다. 지금까지 행정이 담당하여 온 기능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행동함으로써 쇠퇴해가는 커뮤니티를 재생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농상공연대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활동에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의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역 농가들이 운영하는 직매소에서 식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경제의 자립과 스스로의 주체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농공상 연대는 활동 자체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나 그 고용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역에 있는 농촌 여성·고령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직매소', '가공공장', '레스토랑' 등에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및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자나 중간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나 단체가 지역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구 과소화와 경제적 쇠

퇴, 고령화 심화, 조건불리지역이라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아이디어가 연계되어 의미있는 진전을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체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인재, 사업 계획·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인재(코디네이터)의 양적인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 연계를 도모하는 조직과 코디네이터의 활약을 통해 여러 사람과 기관을 제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농공상 연대 확대 방안

1. 농공상 연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농공상 연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6]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과 팩스를 활용했다. 65개 기업 중 23개 기업이 설문에 응해 35.4%의 회수율을 보였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해 요인을 찾아낸다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만 현재 농공상 연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문제(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여부) 해결 참여 정도,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농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농공상 연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요인,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가. 지역문제 해결 참여도

커뮤니티 비스니스적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경영체의 발

16 본 설문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에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전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된 기업은 아니지만, 농공상 연대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문제와의 연관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농촌지역은 현재 지역고용,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고민을 안고 있다. 농공상 협력을 시도하는 융합형 기업이 이러한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설립당시 8.7%이던 것이 2009년과 2010년에는 13.0%로 상승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참여도는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용은 설립당시 8.7%이던 것이 2009년이나 2010년에도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고령자는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보다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 설립당시 30.4%이던 것이 2010년에는 39.1%로 상승해 고령자 고용에 융합형 기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고령화시대에 다른 분야에서 퇴직한 인재들을 농공상 연대의 틀 속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 고용 외에 장애인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측면에서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작지만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취약계층을 고용한 융합형 중소기업의 비율

단위: %

구분	설립당시	2009년	2010년
장애인	8.7	13.0	13.0
결혼이민자	8.7	8.7	8.7
고령자	30.4	39.1	39.1

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융합형 중소기업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시장확보 능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5.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동원 능력이 21.7%, 기술개발 능력이 8.7%를 나타냈다.

따라서 농공상 연대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지속성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확보 측면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표 5-2. 융합형 중소기업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순위	요인	빈도	퍼센트
1순위	시장확보 능력	15	65.2
2순위	기술개발 능력	6	26.1
3순위	자금동원 능력	5	21.7

다. 농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

농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순위로 판로부문, 3순위는 기술부문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과 같은 금융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표 5-3. 농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

순위	요인	빈도	퍼센트
1순위	금융부문	12	52.2
2순위	판로(유통)부문	6	26.1
3순위	기술부문	4	17.4

라. 농공상 연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6%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컨설팅, 농공상 코디네이터, 농공상 네트워크 등을 직접적으로 주관한다거나 이를 통해 지역의 농공상 연대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중간지원조직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필요함	19	82.6
필요 없음	4	17.4

마.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요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급 인력 및 기술 부족, 계약재배의 미정착(가격 급등락 시 계약 파기), 농공상 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전담 지원할 부서나 인력 부족, 지역주민의 타지역 출신자에 대한 배타성, 자금 조달의 어려움, 판매유통채널 확보의 어려움, 산학협동 연결고리 부재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기술, 계약재배, 중간지원조직, 자금, 판매망, 네트워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바. 보완해야 할 사항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정책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농공상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협의체 구성, 판로 지원, 연구개발비와 시설사업비 장기 자금 지원 확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법과 제도 정비, 농공상 융합 지원기업 협의회, 농공상 융합 제품 우선구매, 판로 유통망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저해요인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에서는 협의체, 판로, 연구, 자금, 브랜드,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농공상 연대 확대 방안

농공상 연대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사례지역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가.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 협력 위원회 발족과 인재 양성

농공상 연대는 농공상 협력을 통해 사업체의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지역단위에서 농공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공상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식화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공상 융합형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 '농공상융합인재 육성 파트너십 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업과 상공업이 서로 협력하여 융합할 수 있도록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협력체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 대학, 공익법인 등의 컨소시엄으로 하고, 산업계는 인재상에 대한 니즈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컨소시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나.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 필요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은 농공상이 서로 협력함에 있어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NGO,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을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거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체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상 연대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어업인과 상공업인 간 연대(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회, 코디네이팅, 융합형 기업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며, 농공상 연대(융합) 활성

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 지역성을 살린 농공상 연대 확대 필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단위의 기업이나 법인체가 협력하게 되면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제(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써 농공상 연대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 중앙부처 간의 정책 협조 극대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에서도 나타났듯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정책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기적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융자를 위한 담보조건과 이자율 완화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부처 간 진정성 있는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 농공상 연대 참여기업의 농공상 연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목표 공유

농공상 연대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의 애로사항(특히, 운영자금 지원 등) 해결만을 주장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문제(고용 창출 등), 협력 업체의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중심의 지원책에 머무르게 되면 기존의 지원책과 차별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계약거래 정착

농촌지역 농공상 연대는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을 매개로 한 협력이 기본이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자원으로 농수산물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73.9%를 차지하였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라 계약거래의 파기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농공상 연대, 농공연대, 농상연대는 활성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 보장되는 계약거래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계약거래의 정착의 중요함을 주장하는 기업도 있었다. 설문 답변에서 *"농공상 융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함에 따라 농산물(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가에서 가격에 따라 판로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원료 가격의 급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부가 상품 개발에 따른 농산물의 꾸준한 수급(매입)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교육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농공상 연대 촉진을 위한 법제화

농공상 연대를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농공상 연대는 단기적 성과만을 바라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내부의 농공상 연대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촌외부와의 농공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7]'과 같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농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공동발전, 그리고 농어업과 기업의 경영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 활동의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농어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농어업과 기업이 상호 융합·협력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지원책 등 주요정책을 입안·수립·시행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활동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공상인 등 관련 주체가 일체

17 본 법률에 대한 법률안은 부록5 참조

적으로 융합 가능한 운용체계 확립과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농어업과 기업의 융합형 운용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부 록 1

2010년 1차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65개

번호	기업명	과제명
1	신궁전통한과	기능성한과 개발사업
2	㈜천지양	4년근 홍삼을 활용한 고품질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유통
3	에스엠제분	복조리발효쌀가루
4	밤뜨래영농조합법인	고품질 고부가가치 밤 가공제품 생산시스템 구축
5	슬로우아일랜드	수산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 촉진
6	씨알푸드	귀리를 이용한 다이어트 시리얼의 개발 및 판매
7	농업회사법인㈜오제주	제주레몬을 활용한 고부가 제품 개발
8	헵시바F&B	친환경 나주 배를 건조한 배칩을 이용한 웰빙스낵 제품 개발
9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馬부산물을 활용한 BT&IT 융합 육성사업
10	㈜그린팜테크	국내자생 국화과 식물자원(구절초, 감국, 산국)을 이용한 화장품용 소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생활건강 제품개발 및 '그린투어리즘' 사업화
11	BM생명공학연구소㈜	생약재배 및 가공의 고품질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의료 상품 개발 및 수출 사업화
12	한성푸드	오리고기 통조림 개발 및 유통·판매
13	동진수산	수산물 중 참조기를 활용한 고기능성상품화로 내수 / 수출 극대화
14	㈜마린바이오프로세스	유산균 발효공법에 의한 국내산 다시마로부터 GABA(γ-aminobutyric acid) 함유 기능성 신소재 개발
15	농업회사법인㈜싱그린푸드시스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기술개발
16	매일식품	청정순천만현미와콩장류사업(간장, 고추장, 된장)
17	농업회사법인 정동명씀바귀	지역 특용작물을 이용한 공해물질 해독 기능성 식품 개발
18	㈜장수채	여주땅콩산업 활성화 사업
19	㈜약초보감	천연색소 산업화 사업
20	남도탁주	우리쌀 배막걸리 생산 가공시설 확충

21	동의나라	뽕나무의 고소득작물화를 위한 오디와 잎의 가공 및 제품 생산 기술 개발
22	농업회사법인아람농장㈜	과실의 천연식이섬유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산업화
23	㈜바이오믹스	구기자를 이용한 (인지능력개선)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개발
24	염산천일염영농조합법인	천일염 고부가 명품화사업(웰빙소금 개발 및 웰빙스퀘어 구축)
25	에이치씨바이오텍	장흥군 비교우위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시설 확충 및 제품개발
26	동트는 농가 영농조합	명품된장음식·식품개발(36 개 종류)
27	머쉬랜드	팽이버섯을 활용한 캔 통조림 가공
28	자연드림㈜	수경인삼(1세대원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화장품 개발
29	림프루츠	충북영동 지역연고 특산작물인 감의 부산물을 이용한 감 음료 및 감식초 개발을 통한 사업화
30	주)우리에이엔에프	총체보리 한우 육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 판매사업
31	허브 F&C	천연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일회용비누의 개발
32	현대영농조합법인	양파의 기능성 소재화 및 항고혈압 음료 개발의 상용화
33	토마토영농조합법인	非商品果(열등재) → 프리미엄 생과일주스(우등재) -(초고압장치를 이용하여 유통기간 연장)
34	서산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	발효 흑마늘의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미용식품 및 화장품 개발
35	산머루농원영농조합법인	기능성 머루품종으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유통활성화
36	㈜가보팜스	양봉산물과 지역특산물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37	e제주영농조합법인	감귤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원료 개발
38	차령농산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39	자연과 미래	효소를 활용한 친환경 기능성 가공용 검정쌀 가공생산 및 유통 사업
40	㈜일구오공	제주 감귤을 30% 이상 함유한 초콜릿 제품 개발
41	㈜제주건국내츄럴	녹차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비타민) 개발
42	㈜영동초콜릿	충북 영동산 곶감을 이용한 초콜릿류의 지역명품화

43	㈜지유본초	친환경 천연물(용아초)응용 간기능개선음료 및 신약 개발 사업
44	아름그린영농조합법인	딸기를 이용한 웰빙 떡개발
45	참든마을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유기가공식품 제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의 전략적 융합사업
46	농업회사법인 경덕주식회사	녹차를 이용한 발효음료 개발사업
47	참다래유통사업단	건강음료, 간식 개발 및 유통, 판매
48	농업법인(주)명천	홍삼, 잡곡을 분쇄가공하여 쌀모양으로 재생한 건강기능 식품 제조
49	놀뫼인삼영농조합법인	Global GAP 인삼 재배단지 구축 및 가공 판매 사업
50	㈜두레양조	브랜디 생산・유통・판매
51	㈜한주원	천마식품 가공
52	㈜에코덤	감 껍질을 이용한 기능성 바이오제품개발: 천연화장품
53	좋은영농조합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 기능성 식품개발 사업
54	한국울금	울금 가공 육성사업
55	영)반딧불콩단지	어린이용 웰빙 발효식품 개발
56	보광어성초	어성초와 산야초를 이용한 천연식품의 개발
57	농업회사법인㈜케이엔비푸드시스템	신선편이 농산물의 선도유지 유통방법
58	서천 한산식품	한산모시잎을 이용한 식품개발사업(한산모시잎젓갈 사업)
59	대동인삼영농조합법인	인삼 성분별 강화된 제품 개발 및 시장화 사업
60	이영자의소문난옥돔영어법인	이영자의 소문난 '고추장 옥돔' 개발 사업
61	㈜두암	즉석 쌀 막걸리 프랜차이즈 사업
62	㈜청정인삼	발효홍삼식초를 이용한 기능성 홍초음료(천연음료) 개발
63	청산녹수	과실의 미생물을 이용한 막걸리 발효
64	㈜지수농산	기능성 유산균을 첨가한 '유산균 발효 김치' 출시
65	골드레벤	바이오 홍삼(인삼) 및 인삼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제조

부록 2

2010년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

순번	주관기관	과 제 명	지역
1	(주)미드미	이중캡슐 인삼가공 기술개발을 통한 인삼의 용도 다양화 및 상품화 기술개발	충북
2	(주)씨아이티	당진군 특화작물 청삼 종실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대전 충남
3	(주)씨앤지	키토올리고당이 함유된 기능성 참외를 이용한 건강음료 개발	대구 경북
4	(주)에코마인	토마토 유래 라이코펜을 이용한 천연 육모제(의약외품) 및 민감성 두발전문화장품 개발	부산 울산
5	(주)예진	포도껍질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료 및 이를 이용한 친환경 섬유제품 개발	대구 경북
6	(주)유로코스텍	천연유래 재료를 활용한 기능성 미용제재 개발	대전 충남
7	(주)제닉	쌀 미세분을 이용한 라이스 페이퍼형 마스크 팩 개발	서울
8	(주)천지양	홍삼유래의 혈압조절 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식품 개발	서울
9	(주)해피콜	국내 자생 오미자 추출물의 피부 항노화 활성 규명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의 개발	경기
10	기장물산(주)	갈조류 알긴산유래 저분자 폴리만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개발	부산 울산
11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유색보리와 귀리를 주원료로 한 당뇨환자용 즉석죽 개발	전북
12	뉴로코스메틱	편백 초임계 표준추출물을 활용한 피부 심신스트레스 완화효과 바디케어 제품개발	광주 전남
13	삼성생약(주)	비타민나무 잎, 열매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헬스케어 제품 개발	강원
14	(주)아데나	삼칠근 추출물을 이용한 음료 및 기능성 식품 개발	경기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2010.

부록 3

2011년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지정공모과제)

선택	과제명
1	칡덩굴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 소재 개발 및 제품화
2	국내산 산채류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소재 및 건강기능성 제품 개발
3	오미자로부터 여드름 개선용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항여드름 화장품의 제품화
4	국내산 자생식물을 이용한 체력증진용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산업화; 한국산 겨우살이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5	해파리에서 유래한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6	도라지 및 산마를 활용한 면역조절 발효 음료 개발
7	옥수수 지상부 유래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화장품 개발
8	수산가공부산물의 발효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개발
9	발아곡물의 버섯균사체 발효를 이용한 항당뇨 및 항비만 효능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제품 개발
10	홍삼추출물을 이용한 안면 주름개선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미용패드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2011.

부록 4

2011년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기업제안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금녹차를 이용한 탄력효과를 지닌 고기능화장품 개발	(주)코스메카코리아
편백나무로부터 항여드름균, 항비듬균, 항무좀균 활성 및 미백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	(주)바이오스킨테크
압출성형 홍삼을 이용한 고기능성 홍삼음료 개발 및 산업화	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주식회사
난대성 지역 특화작물을 이용한 기억력개선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한국인스팜(주)
생물학적 식이섬유를 이용한 고식이섬유 농축액 및 식이섬유 보충용 음료 개발	농업회사법인아람농장주식회사
오미자 진액을 이용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기술 개발	(주)와이디생명과학
충남 특화작물인 견과류를 이용한 탈모방지 및 항노화 화장품 개발	에치엔지화장품(주)
천연 추출물과 봉독유효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	(주)청진바이오텍
뽕잎의 복합발효 생물전환공정을 이용한 면역증강·항바이러스 효능의 사료첨가제 개발	(주)에스티알바이오텍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활용, 발효 기술을 이용한 마(산약)의 다이어트 관련 기능성화 식품개발	(주)케비젠
발아현미와 균사체의 생물학적 전환기법을 이용한 카페인 저감화 및 대사증후군 예방 커피발효물의 음료개발	(주)코시스바이오
인삼의 신규 유효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주)헬스바이오메드
고압효소반응기를 이용한 어류유래의 점도 및 이취가 없는 초순도 콜라겐 개발 및 산업화	(주)뷰티콜라겐

온천 미네랄 활성수와 장뇌삼의 진세노사이드에 의한 항노화 및 미백효과를 갖는 기능성 소재 개발	주식회사 라누베
나노입자화 나노캡슐화 기술을 이용한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상품개발	(주)장수채
생물전환 기법에 의한 해양생물 유래 스트레스 해소 기능성 식품(소재)의 개발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웰빙식품 개발	주식회사아미팜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원료개발 및 제품 상용화	e제주영농조합법인
더덕을 이용한 폐질환 및 면역증강 기능식품 소재 개발	제니스
중금속 및 방사능 원소 90% 이상 제거 가능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바이오필터	주식회사 이노테라피
죽염과 쥐눈이콩의 발효에 의해 생성된 조성물을 이용한 기능성 발효음료 개발 및 산업화	인산죽염촌주식회사
꾸지뽕, 담쟁이덩굴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 개발	리봄화장품주식회사
염전의 친환경소재 개발 및 천일염 융합형 제품개발	염산천일염유통영농조합법인
감껍질을 이용한 피부보습 및 피부보호 효과 천연 기능성 화장품 제품개발	에코덤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2011.

부록 5

가칭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상"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어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농공상융합"이란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에 기술, 인력,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농공상융합기업"이란 농공상융합에 의하여 신상품 개발, 생산, 수요 개척 및 제공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농공상융합 촉진 및 농공상융합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농공상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농공상융합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공상융합과 그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공상융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공상융합을 촉진하고, 농공상융합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농공상융합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공상융합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농공상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공상융합지원사업의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공상융합을 촉진하고 농공상융합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농공상융합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농공상융합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농공상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농공상융합기업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공상융합경영 보의 등록) ① 농공상융합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공상융합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공상융합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상융합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공상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 보의 확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등록 보의 수 등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공상융합기업에게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등의 요청을 받은 농공상융합기업은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공상융합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공상융합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공상융합기업과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아니한 농공상융합기업에 대하여 농공상융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농공상융합 우수업체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공상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상융합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가 아닌 농공상융합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7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전업 또는 폐업으로 농공상융합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1조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농공상융합 우수업체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체 중 농공상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상융합기업 및 농공상융합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농공상융합 우수업체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상융합 우수업체 등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공유토지 및 건물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공상융합기업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대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받은 토지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농공상융합기업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농공상융합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농공상융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농공상융합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농공상융합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부담금의 면제)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공상융합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공상융합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인증업체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문헌

김용렬 · 허주녕. 2011.「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 허주녕 · 최은경. 2011.「일본의 농상공 연대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4.

김선기. 2010.「커뮤니티비지니스의 개념과 정책방향」,『자치발전』5월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중소기업청,「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2010. 7.

서윤정, 「우리나라 농상공 연대의 전망과 과제」,『한국 농업·농촌 발전의 대안 모색』, 농정연구센터, 2011. 3.

서윤정 외. 2010.「신시장, 신사업 창출의 농상공연대 사례보고서」. 농촌진흥청.

이병오,「농상공 연대를 통한 농식품 비즈니스 고도화 방안」(워크샵 자료), (주)정앤서컨설팅, 2010. 7.

중소기업청. 2003.「지역향토산업 육성 기본계획」. 중소기업청.

정명운. 2009.「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제러미 리프킨. 2005.「유럽피언 드림」. 민음사.

최병삼 외. 2007. 컨버전스의 성공조건, SERI, CEO Information

타무라 요시히로(田村善弘)·이병오,「일본 농상공 연대 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유통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1. 2.

홋타 카즈히코(堀田和彦),「일본 농상공 연대 조직의 활성화 전략」(워크샵 자료), (주)정앤서컨설팅, 2010. 7.

(일본문헌)

고큐 히로시(後久 博),『농상공 연대에 의한 신 지역활성화 추진』, 교세이, 2009. 3.

농림수산성 외,『농상공 등 연대 사업계획 인정 사례집 (제5기)』, 2010.

마츠다 카즈야(松田一也),「농상공 연대로 지역활성화」(경제산업성 설명자료),

2010. 10. 農林水産省,農商工連携８８選一覧表
農林水産省, 農商工連携事例集 -農商工等連携促進法第１回認定（H20.9）
農林水産省. 2010. 農商工連携利用ガイドブック.
關東経濟産業局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推進チーム「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事例集2008」2009年 3月
關滿博·松永桂子 2009『農商工連携の地域ブランド戰略 [単行本]』新評論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地域中小企業應援ファンドスタ-ト·アップ應援型事業化事例集』2011年3月
(財)日本地域開發センタ―参加型まちづくり事例集
http://www.jcadr.or.jp/sankagata_jirei/jireiset/jirei24/jirei24.htm
ミッションマネジメント(NPO經營) http://www.kawanisi.jp/npo/06.htm

연구보고 R653-2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방안과 확대가능성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1.
발 행 2011. 1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283-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